朝鮮日報

夕刊

『잘』領域治安確保로 即時出兵도不辭

人民投票앞두고問題重大化 나치스活動에佛外相聲明

【쥬네브二十七日發聯合】 자ー르流域의 歸屬決定에 關한人民投票를四個月後에 앞두고 히틀러氏를 統治下의나치스獨逸은 大大的活動을開始하야 자ー르領域에 잇서나치스 別働隊의行動은 最近드듸여 熾烈을 極하게 되여자ー르施政委員會는 領域의治安確保에 警察力의 不足을 呼訴하고잇는 現狀이다 二十七日聯盟理事會에서 施政委員의報告를 審議함에 當하야佛國代表바르투外相은 자ー르領域의 治安確保에必要가 잇스면 佛國政府는 即時出兵 이라도不辭하겟다는 旨를闡明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佛國政府는자ー르領域에서 自國의諸權益을어데까지堅持하고 右權益의一端이라 도 放棄할수업다 그리고人民投票의決定 如何에不拘하고 右決定을 尊重하기를不吝하는바이나 人民投票는어데까지 公正할것이며 不當한壓力은一切排除치안으면 안될것이다 萬一자ー르施政委員會가 警察力의不足으로 人民投票의 公正을確保하기 不可能할 境遇에는 佛國政府는 何時에나 必要에 應하야 警察力을 同委員會에提供할것이다 그리고 不逞分子의策動으로 자ー르領域의 治安確保가 攪亂될時에는 佛國政府는 領內의秩序를回復하고 또는 維持하기 爲하야斷然出兵하기를 躊躇치안을것이다 바르투外相은 언제나原稿를갓지안코 即席에서 雄辯을 振하는것을 得意로하나 잘領域出兵에 關한 今回의 演說에限하여는 特히草稿를準備하야 朗讀講說을行한것은 特히注目을끄럿는데 右는자ー르領域問題를極度로重大視하고 斷乎한 決意를表示한것이라고 觀測된다 (寫眞은 바르투佛外相)

墺獨立保障確認의 英佛伊共同宣言

二十七日壽府서署名

【쥬네브二十七日發聯合】 墺太利獨立保障을確認하는英佛伊三國共同宣言은 二十七日쥬네브에서 成立되엿다

一、쌍제르만 條約의精神을基礎로墺太利의 保全及獨立을保障하려하는三國의意思를玆에再確認함

一、從來에發表한 此種宣言의意義를다시强化한다는趣旨의 共同宣言書에 이든英國國璽尙書、아로이지伊太利外相、바르투 佛蘭西外相의三代表가署名을終了하엿다 따라聞知한바에依하면 伊太利에서는 最初各宣言의 微溫的內容에 不滿을抱懷하고 墺太利 獨立 保障을 爲하여는 聯盟規約以外에 따로獨自의强力한强制規定을 設하기를希望하엿스나 結局英佛案에依한 宣言도 업는것보다낫다는見解에서 署名하게된것이다

共同宣言全文

【電通쥬네브二十七日發】 墺太利獨立保障의英佛伊三國共同宣言全文은 左와如하다

墺太利의事態를새로檢討한後 佛國、英國、伊太利代表等은墺太利의獨立及保全을現存諸條約에順應하야 持續할必要에 關하야 一九三四年二月一日에發表한 宣言이現在完全效力을保有하고잇고 또左右諸國의共通的政策을 鼓吹하기爲하야 存續식힐것이라는것을 確認하기에意見一致되여 各自國政府의名義로 玆에協定하엿다 (寫眞은 이든氏)

아프가니스탄國 聯盟加入決定

【쥬네브二十七日發聯合】 二十七日午前聯盟總會는 去二十五日事務局에提出된 아프카니스탄의 聯盟加入問題에對하야 審議한結果 原案을滿場一致로 可決하엿슴으로 同國의聯盟加入은確定되엿다 이것으로聯盟加入國은 [illegible] 十九個國으로되엿다

蘇聯邦代表突然 軍縮決議案提出

【쥬네브二十七日發聯合】 聯盟總會는 二十七日午前十時十分에開會되엿는데 [illegible] 아프카니스탄의 聯盟加入을 承認하엿다 이리하야新聯盟加入國은五十九個國으로되엿슴이다

【쥬네브二十八日發聯合】 새로聯盟에加入한 蘇聯邦外務人民委員 [illegible] 動向은 자못注目되어잇든바 蘇聯代表는 二十七日聯盟總會에軍縮問題를끄러내어 左와如한 決議案을提出하얏다 軍縮會議는聯盟의現狀에鑑하야 今後進行方法을改하든지 或은軍備縮減의責任을 聯盟自身이질것을要求함 右決議案을내노자 總會는적지안케 狼狽의色을보엿스나 結局總會는 [illegible] 後日의詩議에 讓하기로하고 軍히決議案은 記錄에남기기로하고 散會하얏다

英國産業團 經濟使節來日

【電通橫濱電話】 滿洲國의産業狀態를 視察하고또日英[illegible] 關係의 親善을圖하려는英國産業聯盟에서 派遣된 [illegible] 以下四氏로構成된 [illegible] 一行은 二十七日 午後四時 [illegible] 丸으로來日하야 橫濱에入港하는 [illegible] 記者團을 [illegible] 을代表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我等의任務는 日英兩國의親善關係를깁게하고 滿洲國의産業狀態를 視察하려는것이 其全部다 我等은純全한經濟使節로 政治問題에는 一切 干涉치안켓다

反滿軍과激戰 ○隊○○死傷十名

【安東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隊는 二十五日午後六時三十分 [illegible] 約二百名의反滿軍에遭遇하야 [illegible] 激戰하엿다 右戰鬪에서 日本側에는 戰死二、重傷四、輕傷四를내엿다

風水害應急對策

在滿機構改革案、蠶糸對策 臨時議會에提案할範圍

【東京電話聯合】 臨時議會召集에關한 政府의方針은 廿八日閣議에서 正式決定하기로되엿는데 同日閣議에서는 臨時議會에 提出할政府案의 大體範圍에對하여 討議되리라고豫想되나 政府의 意圖는臨時議會에提案할 範圍는風害、旱害、冷害、水害等應急對策과蠶絲對策及 在滿機構改革案만에 限定하게될 模樣이다 그리고 召集期日及會期等은案의作成과 案의內容等에依하야決定될것임으로目下決定的豫想은나릴수업스나關係事務當局의意向도尊重하여야될것임으로 實際問題로 議案이準備되기까지에는 一個月의短時日에는 困難할것임으로

臨時議會를目標로 關東廳職員益硬化

在滿機構改革案排擊에拍車 長官의慰撫結局無効

【大連二十七日發聯合】 菱刈關東廳長官은 在滿機構改革案實施促進의熱이라할만한 現地의反對가 强硬함으로 其鎭壓의必要를感하고 二十七日特히 大場警務局長을 官邸에招致하야 三時間廳內外의情勢를 聽取하고 政府와軍部의方針을傳達하고極力全職員을 慰撫하라고 命令하엿슴으로同局長은各課長及 御影池大連民政署長等과 會見하고 長官의眞意를傳達한後 今後處置에 對하야 鳩首協議를遂하엿는데 待望하든 臨時議會召集이 決定된以上全職員의 主張은 益益深刻硬化할뿐으로 長官의慰撫도無効에歸하지나안을는지 注目되여잇다

【大連二十七日發聯合】 臨時議會召集決定과同時에 狂喜한旅順、大連兩市의 六警察署長警部補等은 全滿巡査團과는別個로 機構改革問題反對運動을 니르키게되어 別動隊를組織하고理論鬪爭에依하야 軍部排擊에主力을다하기로되엿다

專任拓相問題注目

【電通東京電話】 岡田首相은 在滿行政機構改革問題解決의便宜上過渡的으로 拓相의椅子는 首相이兼攝하고잇는데 同問題도이미閣議의 決定을보게되엿슴으로 政府首腦部에서는 臨時議會前에 拓相의 專任을完了할希望을 갓고잇스나 一方對陸軍과의間에 極히微妙한關係를갓고잇슴으로 차라리首相兼攝으로 議會에臨하는것이 對議會策으로도 有利하리라는見解도잇슴으로 貴族院、政友會方面의專任 拓相設置說과가티 岡田首相의態度는 一層注目되여잇다

東邊道一帶의 最後的大討伐開始

【奉天二十七日發聯合】 高梁繁茂期以來 東邊道一帶의反滿軍은遂次로其數를增加하야東北人民革命軍、朝鮮○○革命軍等政治的勢力과 合流되여其數가一萬으로推算되여잇는데 其行動은 極히猛烈하야 山城鎭의襲擊、安國縣城의 包圍等襲擊目標를 主要縣城에두기때문에 住民은戰戰兢兢하고잇는 現狀에鑑하야 奉天○○隊는滿洲國軍警과連絡을取하야 東邊道一帶의 最後的大討伐을敢行하기로決定하고 이미去二十五日早朝를期하야 一齊히活動을開始하엿다 今回의討伐은 東邊道를六區로分하야 三宅司令官麾下의臨城、川村、板津、野、岩中、本間各部隊가分擔하고滿洲國警備軍、警察隊와도緊密한連絡을取하야 新戰術을應用하야 一擧反滿軍의 潰滅을期하려하고잇슴으로 近近司令部를前線으로옴겨三宅司令官自身이陣頭에설터이다

朝鮮語法의術語論

過去官名、地名은조선말로썻다

(三) 延專教授 崔鉉培

(3) 조선말의 말본(語法)만은 조선사람의 科學的 活動에 잇거든 最後唯一의 조선民族의 文化的 遺産인즉、우리는마땅히 우리의 知力과 語彙로써 우리의말본의 體系를 꾸미어야 할것이다。

朝鮮民族의 半萬年 歷史的 生活의 文化的 遺産은 참으로 多方面으로 적자 아니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온전히 歷史的 遺物일 따름이요 도모지 現實的 所有는 되지 못하며、또 [illegible] 그것을 [illegible] 自由로 [illegible] 할만한 新有權을 가지지못하엿을 뿐만 아니라 知力으로도 그것을 理解하며 體系化하며 應用化할 能力조차 가지지 못하엿다。 地中에서 나오는것이나 地上에 잇는것이나를 勿論하고 남의 手中에서 남의知力으로 料理되는 形便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의朝鮮民族의 後裔는 제할아버지의 文化的 遺物에 對한 理解를 가지지못하고 다만 남의 硏究의 結論을듣고자 願望하고 잇을따름이다。 보라 朝鮮의 建築、彫刻、陶磁器、書畵 等 美術品、社會 制度、歷史 方面에까지 硏究精通의 知的 權威는 부끄럽지마는 우리에게있다고 大膽스럽게主張할수가있을는지가疑問인것같다。 言語方面에서도 言語學的 語源學的硏究、남이 우리보다 많이 한것 같다。 말본에 關하여서도이미 佛、英、米、獨等 모든 外國人의先着手와그成績의可驚할것이 적지 아니하다。 그렇지마는 現在살아있는 말의 精通者는 아모래도 우리조선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본을 完全히 精通할 能力은 우리에게 [illegible] 이다。(京城帝大朝鮮語科에서 朝鮮語 語法을 講함을 듣지 못함은 這間의 消息을 傳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조선말의 말본은 저 조선의 노래(歌謠)와 아울러 正히우리의 硏究能力을 기다리는우리先民의 文化的 遺産이다。 이제우리가 이것을 硏究함에 當하야 부지런이 남의 찌꺼기(糟粕)를 핥는것으로써 滿足한다하면 이는 정말로 義務를 저바리고 特權을 내버리는 自棄의 무리가 되는것이라 할것이다。

(4) 순조선말로된 말본의 갈말(術語)은 가장 自然스러운 同時에 가장 깨치기 쉽다 이 넷재 理由는 가장 平凡하며 當然한 것이것마는、이것이 도리어 世人의 所謂 常識的 觀念과는 다른 點이어서 우리와 조선말로 짓는 갈말(術語)에 對하여 흔히 誤解와 異論을 [illegible] 보는터인즉 나는 이 點에對하여서 [illegible] 敎育을 맛고저 한다。

元來 朝鮮사람의 思想 感情을 發表함에 그 母語인 조선말로 함이 가장 自然스러우며 適切할 것은 理의 當然한바이며 事의 實證하는 바이다。 朝鮮의 歷史를 상고하건대 國名 官名 地名 人名其他 日用語가 모다 순전한조선말로만 되엇던것임은 누구나다 否認할수없는 事實이다。그렇던것이 不自然한 外勢와 및그에 따르는 卑劣한 心理 即 내것은 나쁘다 하고 남의것은조흫하다하야 남의것이면 無條件으로 숭상하는 可笑로운 事大的心理를말미암아 從來로 의거써오던 제말은 버리고 支那의것을 取하게되었도 또한事實이다。 그리하야 國名 官名 地名 人名은 勿論이요 甚至於 日常語에도 漢字語를 썼用하게되었다。이리하야 순조선말은 [illegible] 漢字語가 橫行 [illegible] 게 되였다。그래서 두가지 말이 竝存할 境遇에는 순조선말은 卑賤한 無識한 또는 나쁜 말이 되고 그에 對한 漢字語는 高尙한 有識한 尊敬하는 말이 되었나다。이를테면 「아버지」「아버님」보다「父親」「春府丈」이 좋은 말이 되고、「집」보다 「宅」이 좋은 말이 되고 「아저씨」보다 「叔父」「阮丈」이、「조칸」보다 「咸氏」가 좋은 말이 되었을과 같은 따위이다。 이러한 結果로 畢竟에는 漢字語가 순조선말보다 더 親近하고 깨치기 쉬운것처럼 생각되게 되는 本末顚倒의 奇怪한 心理狀態(비록所謂 有識者라는 一部 階級에 限하나마)를 지리드를 이루게되었다。이는 마치 靑年들이 흔히 몸에 쥐하다 하면 아주 먹기어려운 飮食物도 즐겨서 잘 먹는것과 같은 心理이다。

反蔣機運濃厚로 蔣介石前途多難

共産軍도擴大되는形勢

【天津廿七日發聯合】 確實한情報에依하면 中國의政情은益益困難을加하게되여 反蔣的色彩가 漸次濃厚하게되고잇다 即江西省內의共産軍은 勢力이減少되엇스나 福建省內의不安은依然猛烈하고 湖南廣西兩省境과貴州의共産軍과의 連絡이維持되려하는 形勢에잇고 또四川方面의共産軍은劉湘氏의討伐失敗로더욱擴大될兆候가보인다 中央의對共事業은 期待에反하야 進捗치못하는實情에잇다 一方西南派는露骨的으로反蔣意思를表明하야第五中全會議를압두고 最近反蔣的氣運이 濃厚하게되엿다 또最近에는 中國의聯盟非常任理事國으로부터 轉落한事實等國際的으로도 聯盟及列國의對中態度가 顯著히 冷淡하게되엿다 此際蔣의前途는 對內對外的으로相當한 困難이 橫在하여잇다 (寫眞은 蔣介石氏)

中伊兩國公使館을 大使館으로昇格

南京政府公式發表

【南京二十七日發聯合】 二十七日南京政府의 公式發表로中國과伊太利兩國政府는相互、相對國에駐劄케하고잇는 公使館을大使館으로 昇格식히기에意見一致되여 이미二十七日몬소리니首相의親署를바든 駐中伊太利公使와 行政院長汪精衛氏와의間에 右에關한協定公文書의交換을終了하엿다

日本公使館의 大使館昇格

【電通東京電話】 伊太利政府는 中國의政治的、經濟的、文化的重要性에鑑하야 二十六日 中國公使館을 大使館으로昇格식히기로 決定하엿다고 公表하엿다 一方英國도亦是中國公使館의昇格을考慮하고잇는것은 事實이오其他各國도 此昇格에 追隨할形勢가 濃厚하게되엿다

그리고 日本外務省은 右에關하야 駐外官憲으로부터 아직 何等報告를接치못하엿스나 外務當局으로서는 이미昇格식힐 豫算은 議會의協贊을어덧고또 有吉公使도 大使의資格을갓고 잇슴으로 昇格에는何等支障이 업다 다만列國과의關係上 其 實施를遲延하고잇든바 蘇聯은 이미數個年前부터大使를派遣하엿고 今回에또伊太利도昇格을 決定하고 列國도追隨할形勢를 보이는以上 日本도遲延할必要 가업다하야 近近大使館昇格을 斷行하기爲하야 諸般準備에着手하엿다

八面鋒

◇두夫婦 네親子가 大阪災地에서 同時에俱殁。

◇生亦同 死亦同의處地로보면 업기도어려운일이나 慘中의慘이오 慘中의慘。

◇伊太利가 駐中公使를 大使로 昇格식히리라고。

◇國內事情은 疲弊해가고 對外關係는 커가는것이 中國의現實。

◇獨墺의獨立保障을 英佛伊三國이 共同으로聲明。

◇聲明쯤은 國際間의『言論自由』일가모르나、아모리생각해도 알자락임은 翻酌。

南朝鮮復舊費 臨時議會에要求

總督府에서準備

災害對策을中心으로한臨時議會召集은 不免의情勢로되여잇는데이에關聯하야朝鮮總督府는 南鮮水害至急復舊對策費로서第二豫備金及 剩餘金支出을기다려殘額을九年度追加豫算에 計上要求하기로決定한 五百萬圓의災害緊急施設費를臨時議會開會가決定하는대로 追加要求로서 提出하기로 事務當局은準備中이다

人事・集會

▲小野寺啓治氏(京城府土木課工事係長) 新任人事次本社來訪

在滿機構問題 議題에서除外키로決定

【電通東京電話】 政府는臨時議會에서 協贊을어들議題는關西地方의 風水害 北陸의水害 東北、關東의冷害、九州、四國의旱害等에局限하고 陸軍側에서希望하는 在滿行政機構改革問題는 除外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提出議案은大體十一月中旬까지에提出할方針이다

臨時議會樂觀?

結局臨時議會召集은 十一月下旬에나하게될듯하다

【電通東京電話】 政府는드듸여 臨時議會의召集을決心하게되여 當面의緊急懸案인風害對策과및旱害救濟對策을 附議上程하게되엿는데 다만在滿行政機構改革問題만은 果然上程될는지 疑問이다 그리고右臨時議會에對하야 政友會는其態度가極히 慎重하야 問題를이르키려는 態度를取하지안코 事態救濟案의 成立을希望하고잇는뜻함으로 臨時議會에서 [illegible] 民政黨은 元來부터그러한 念慮가 全然업슴으로 臨時議會는無事히 終了되리라고 觀測되는바 政局의危機는 亦是非常議會로 期되리라고觀測된다

十一月下旬召集?

大演習前은不可能乎

【東京電話聯合】 臨時議會의 召集期日에關하야 政府首腦部에서는 陸軍大演習前十月下旬乃至十一月上旬이 適當하다고 決定한模樣인데 此에對하야農林、內務、大藏의各省事務當局에서는 到底히右期日까지에는 臨時議會에提出할 議案의完了를期하기不可能하고 災害實情調査事務上 又는技術上으로보아거이不可能한 狀態임으로召集期日은아마 大演習後의十一月下旬에되리라한다 即現在農林省에서 成案을어든것은겨우 北陸水害對策뿐으로 九州四國의旱害東北北海道의 冷害에對하여는 겨우九月에드러가비로서其被害가深刻하다는 事實이 明瞭하게되엿슴으로 目下實情 調査를急히하고잇는데調査完了까지는 相當한日時를要할터이다 그리고 關西中國의風水害의 被害도豫想以上으로 擴大를不許하며 今後의調査를기다릴것 이非常히만타 一方大藏省事務當局은來年度一般會計豫算槪算査定中突然風水害復舊豫算에着手한다드라도 到底히十月下旬까지에成案을엇기는 困難하리라고한다

臨時議會召集 閣議서正式決定

【電通東京電話】 政府는 二十八日定例閣議에서 左와如히協議하고 即時 此를發表하엿다

一、各種災害對策에 緊急을要할것에對하여는 臨時議會를 開催하기로하고全國에亘하야 各省의 調査提案을急히할것

一、議會의協贊을기다리지 안코 實行할수잇는緊急한施設에對하여는 當者 此를實行할것

一、低利資金의供給은 必要에應하야 適當한準備가잇다

政府對政友關係 一層더惡化?

【東京電話聯合】 政友會에서는政府에서도마침내 臨時議會를召集하기로決定하엿다는情報가傳하게되엿슴으로 今後에는 同臨時議會對策을 審議하기로 되엿다 同黨으로서는今次의臨時議會對策은 東北北海道의凶作、北陸의水害九州其他의旱害와今回關西方面의 大風水害對策에對하야 審議하게되엿는데 其救濟對策의豫算審議에對하야는 特히愼重한態度를取하야 誠意로서其協贊에當하고 首相藏相外相의 施政方針演說에 對하야는 黨內의精銳를拔擢하야 壇上에보내어簡單明瞭하게 黨의政策을闡明하고 政府對策에對하야 堂堂한陣을 베풀기로 方針을決定하엿다 그리나 後藤內相이 昨日 車中談에서 「臨時議會를 開催한다하드라도 이것은決코 政友會의請求에依하야 行할것이안이다」라고 放言한것은 同黨內一般의感情을 害하야 政府今後의態度如何에 依하여는 政府對政友會의關係는 一層惡化할兆候가 보인다 그리고政府의救濟對策이 微溫的일境遇에는 同豫算의通過는 此를拒絶치안흐나 더욱徹底的 對策의立案을要求하야 萬一政府가 此에誠意잇는答辯을行치 안흘時에는 政府不信任의意思表示도 구타여不辭하겟다는强硬論이相當히 有力함으로同黨 今後의態度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되여잇다

今日로마지막 市價의半額大特價提供

(注意) 運賃은貴地局又는驛까지會社서支拂濟、最近의郵便局又는驛을指定하시오。

高級純手製靴

此靴는특마옴에맞는品、他店에서안되는底革을手縫한中皮會特히精選하는年齡、底革은耐久力充分한本革흰底玉中底先芯等도 他品追從不許의優良品

最新 フレンチ型

黑編上皮中敷付 二足金九圓二十錢 一足金四圓八十錢

黑短靴 二足金八圓十五錢 一足金四圓三十錢

文數所用대로指定하시오 (貴地局渡)

フレンチ型과ブル型二種有、十文으로十二文까지

手製革靴一足나리새무늬 [illegible] 一足式進呈

紳士、靑年、學生用으로서陸續注文을나리심에應하고잇습니다 (貴地局渡)

堅牢無比 靑年訓練用靴

耐久二ケ年以上 特別奉仕

이의洋靴는이刻皮와堅固한底의付을 革耐久力을軍隊式으로比類없는것은 訓練靴一足하라 實用양말一足無代進呈

新案出 黑編上靴 上皮中敷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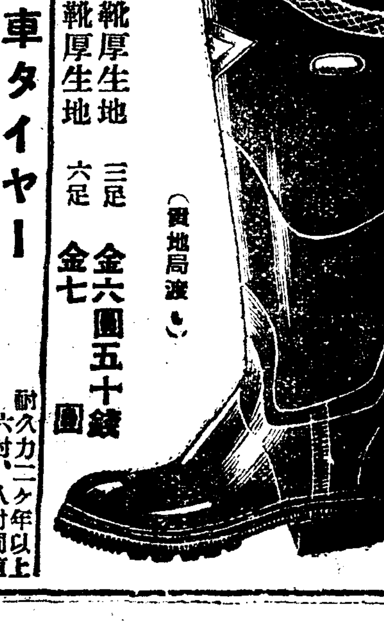
特價 一足金四圓十錢 二足金七圓八十錢

小供用豆長靴

(貴地局渡) 特品裏毛付 エナメル塗

十足金七圓五十錢 七文、七文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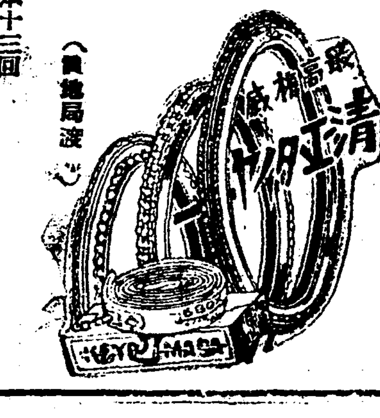
紳士用ゴム長靴



アメ底 大人長靴厚生地 三足金六圓五十錢 小人長靴厚生地 六足金七圓 (貴地局渡)

耐久力二ケ年以上 六吋、八吋同値

自轉車タイヤー 景品付賣出



A號 一組二本 金四圓 二組 金七圓四十錢 他に高級中袋一組無代進呈

特A號 一組二本 金四圓四十錢 二組 金八圓二十錢 他に高級中袋一組無代進呈

A號タイヤーは二〇絲八本十三回 特A號タイヤーは二〇絲九本十三回 (貴地局渡)

合資會社 アサヒタビ工業所

日ノ出松地下足袋

(貴地局又は驛渡)

特製地下足袋二萬足限 速便勝利

朝鮮日報切取注文人에限하야左記大特價提供

特製地下タビ 十足 金六圓 百足木箱入 一梱 金五十四圓

改良地下タビ 十足 金五圓三十錢 百足木箱入 一梱 金四十七圓

絹宣傳廣進呈

注文 便紙로申込次第代金引換으로出荷合品質耐久絶對保險 必히地方小賣價의半價以下、不合時는換品返金 自由、絶對로걱정은안끼참

名古屋市東區千種町 合資會社 加藤ゴム營業所 電話東四八二九番 振替名古屋二八九番

公判開廷劈頭에 被告間握手要求

三年만에對面하는夫婦被告

韓琠鍾等十六名出廷

中共朝鮮工作事件

중국공산당조선내 공산당재건 꾸작사건의 한전종(韓琠鍾)등 십칠명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 등 피고사건은 이십팔일오전아홉시반 경성지방법원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좌좌목(佐佐木)검사의 담임으로 제일회공판이 열렷다

韓琠鍾 申大成 鄭宗爽 李斗玉 金鼎九 李昌周 太南龍 張保羅 李春景 金晒範 金初吉 任泰允 金聖子 동열세명은 구속으로 趙相煥 柳東壽 成樂鳳 동세명은 불구속으로 피고인열여섯명 전부가출정하엿다 피고안해들은상면동안이나마결감에서 햇빗을보지못한탓으로대개얼골빗이창백 하엿스나 이상인병색을띈사람외에는 비교적 건강해보엿다 방청석에는 멀리함경도 기타각처로부터온 피고인들의 친척십여명과 가라친지들은 자리를 반이나차지하고잇섯다 합뒤로 논하안지어잇는 피고김국범,김성자두부부가 오래간만에서로 낫(顔)을 대하게되자 그들은 별안간에 감격스러운얼골을보엿다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주소,성명,년령,직업등 신분조사가 잇슨뒤에사실심리를 시작하려할지음에 피고인 신대성은 소리를 노파질러 재판장에게 대하야 『우리들은 삼년만에 비로소 이법정에 나와 동지들끼리대면하게되엿스니 그동안 서로울적한 회포를 잠간이라도풀고십다 서로악수를 하게해주시오』 하고 요구하엿다 재판장은 허가할수업다고 거절하매 신대성은 그러면재판을 밧지못하겟다고,한참동안힐난을하다가 결국 려온히공판을 진행하게되엿다 재판석에는 보기만해도 무시무시한 종과탄환과 기타 증거품이갓득이싸여잇섯다

主謀被告韓琠鍾 轉向說斷乎否認

同志間의誤解풀기爲해說明

事件審理는公開禁止

맨처음에 한전종부터 먼저심리를하게되야 그의 학력기타를물은뒤에 공산주의에 공명한동기에대하야 그는 서적이나또는남의권유로 공명하게된것이 아니오 자기가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에 재학당시 농우련맹(農友聯盟)주최의 농촌순회강연대에 참가하야 순회강연을하다가 경찰서에 금지를당하고 그뒤로말미암아 학교로부터는 무기정학(無期停學)처분을당하고 또한수해로 말미암아 가산이 몰락되어버렷다 그리하야자긔는 마츰내 이 사회에서는 전연락오(落伍)되어 버린 느김을 가지게되엇다 그래서 ××××××사회에서 자긔의 려사적사명을 힘써다해보려고 출발된것이라고 대답을하엿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정의(定義)에대한 문답이잇고서과학적(科學的) 공산주의의 력사적 필연성을 진술한뒤에 조선××문제에대한 민족주의적 견해(見解)와 공산주의적 견해를말하엿다

그다음으로 재판장은 피고가삼사년전에 생각하든바와현재의조선사회정세(社會情勢)에대하야 변화가 업느냐하매 그는 재판장아페 말하기는좀부끄러운일이지마는동지들아페서명백히해두어야될필요가잇다하고서 자기가 형무소안에서병으로통시 위중하게 되어잇슬적에시넘자기 부친이 근정하야경찰서원한명이 자기를 면회하러왓다가 간일이잇섯는데 일부에서는자기를 ×××××의 압잡이가 되여버렷다고 터문이업는중상들을 하는모양인데 자기는그것을 그다지 괘념하지안는바이오다만 그런중상은 조선사회운동에 적년의 폐해인파벌상쟁(派閥相爭)으로말미암아울어난것으로 알뿐이다 공산주의는 전인류의내포(內包)임으로자기는몃해동안 감옥에서 신고햇다해서그주의를 버리거나할 비겁하고약한자이 아니며 영원한장래까지라도 공산주의의 운동에그냥한결가티 종사하겟노라고 명백히 말해둔다하엿다

그다음으로 이사건의 실제내용심리에 드러가서는 공안을방해할념려가 잇다하야 피고인들의가족을 제한이외에 일반의방청은금지하엿다 때는 개정한지한시간만인 오전열시 삼십오분이엿다 이사건의 공판은 이날에다끗낼수업고 이십구일까지 계속하게된다 (사진은한전종)

總督府測量隊 洛東江에서遭難

發動船개솔린탕크爆發로

船夫四名溺死失跡

【東萊支局電話】 이십칠일오후여섯시 오십분 총독부에서 파견된 측량기사일행이 발동기선으로 락동강(洛東江)하류를 측량하고 구포로드러오는길에 김해군 대저면출도리(金海郡大渚面出島里)부근에서 기관실의까솔린탕크가 폭발되어 발동기선은 순식간에타올라 불루성이가되엿다 승조원아홉명은 황급히 물로뛰어들엇스나 기관사와 인부두명은 행방을 알수가업다 그뒤에어드른 사람가운데 측량기사일명이거우헤엄을처서언덕으로 올라갓다 즉시로선 일본경찰과 구포경찰서와토목구포출장소에서는 사무원들 출동식혀밤새어가며 수사한결과 이십팔일 오전네시경에 시체두개를 건젓고 남어지 두명은 아직도 행방을 알수가업다 발견된 의사자의 주소성명은 다음과갓다

東萊郡龜浦面龜浦里 文末明(二三)

同 金東一(二〇)

被襲兩巡査重態

忠南警察部高等課員이出張

加害者들을續續檢擧

【大田支局電話】 이십일일안면도(安眠島)에서생간 운동회소동사건은 방금피해하빈전(濱田)신(申)의두순사가중태인데 이십칠일아츰 충남경찰부 고등과에서 동전(桐畑)경부가 출장하야 방금가해자들을 검거중인데 자세한내용을들으면 이십오일 안면도보통학교에서 시민운동을개최하얏든바 갑부락 대항 릴레이를하다가 쌈이난것을 전긔 빈전,신두순사가 말리고 해산을식혓든바 군중은 이에분개하야 그와가티 두순사를조차가며 습격하야 모둠매를따린것이라한다

災地에人情美談

떠내려가는幼兒를救助하야

내子息처럼기룬活佛

【二十八日午前十一時大阪에서本社特派員洪鍾仁發電】 물에떠내려가는 어린아이를 건저내여 곱게곱게양육한 인정미담의주인공이 조선사람이라는 말을듯고 대판신문에 떠들어칭찬을밧는사람이잇다

그는서정천구(西淀川區)로롱학(盧龍鶴)(三三)이란사람으로무서운물속에 가족들과 간신히목숨을 도망하야가든중 다섯살가량되아이가 떠내려가는것을 구조하야 경찰에 넘기엿든바혼잡한중이므로 일시맛기엿든 것인데그후에 어린아이를 다시차저다가양육을 하든중 이십칠일에 그아이가 병이나서 병원으로데려갓다가 아이의이름을 모르는데서비로소 숨은미담이 세상에드러난것이다

朝鮮名唱大會

來月二、三兩日

시내관훈동(寬勳洞)사번지에잇는 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그동안 여러간부들의 노력으로쇠잔해가는 조선악을 붓들어가기에 힘을만히쓰든중에그동안뵙서만흔인기속에서 제일회 이회의공연을 열엇고 금번은가을놀마지하야 제삼회공연회를 열터이라는데 시일과장소는 오는십월이일삼일오후 일곱시밤 부터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열리는데출연할명창들은 송만갑 리동백이하남녀사십여명이라고한다

米選手十四名 今朝에入京

一行엔蜜月夫婦도두雙

待望의國際陸上競技會에出場하는 米國陸上選手十四名은 監督준마기ー氏引率아래 今二十八日午前八時五十五分、京城驛着列車로來京하엿다 一行中에는 新婚夫婦로蜜月旅行을兼한 主將켄넝간夫人과 그로ー레이夫人을끼여 모다十七名의愉快한一行이다 지난五月末에 『밀워키ー』市에서 열린全米選手權大會에서 選拔된世界的選手들로서 百米에十秒二、二百米에十九秒八이란超人的記錄을作成한 人類中의超特急메트카ー프ー君、中距離界의雄、혼보스텔君、走高跳의世界記錄保持者 마ー티ー君等을 비롯하야 모다가 身長六尺이넘는 堂堂한健兒로서 스포ー스맨다운明朗한氣分을보여주엇다 이들과함께 大連서열린競技會에 出場하엿든日本側選手沖田코ー치大島選手外八名도同行하여왓다 驛頭에는 米國宣敎師會代表 『쿤스』氏外多數米國人들과朝鮮陸上競技協會關係者의 出迎이잇섯스며一行은곳朝鮮호텔로드러가 行李를푸럿다 (寫眞은 今朝京城驛에到着한 米國陸上選手一行)

"全員은好調" 마기ー監督談

監督마기ー氏(뽀ー든大學코ー취)는 往訪한記者에게 다음과가티말하엿다 우리選手一同은모다조흔 컨디슌이다 그中에윌킨스君이 (三段跳)다리가부어서 京城서는 出戰치못할것갓다 昨日奉天서 練習을한關係로오늘은練習을그만두기로 하엿다 우리一行은全部가東洋訪問이처음인만치 風俗、習慣等이다른것이 興味를이끌게한다. 競技에對하야는 東京과大阪等地에서는 氣候가달라濕氣가만흔關係로 南國에서자라난『메트카ー프』君外에는 컨디슌이 그리조치못하엿섯다 그러나朝鮮은 우리나라와氣候가비슷하니까 모다好記錄을發揮한다云云

"深夜의特急" 短距里王과 記者의一問一答

米國陸上選手一行中에서 人氣를獨占하고잇는 深夜의特急黑人『메트카ー프』君은 스포ー츠로서는 全世界를휩치는威名을가젓스나 어느편으로보든지素朴한氣分이떠도랏다 君은말하기를 京城그라운드의土質이조타는말을 드럿다 뛰여보지안코는 모를일이나 이땅에서 二百米曲線路世界記錄을作成하기에 努力하겟다 貴地와가튼조흔風土에서조흔選手가만히 날것도當然할줄생각한다 特히貴紙를通해各方面人士에게 人事를付托한다

【寫眞】右는 世界短距里王인『메트카ー프』君 左는本社運動部記者 高鳳梧君】

滿俱10 龍鐵1

【大連二十七日發聯合】 龍山鐵道軍對滿洲俱樂部野球一回戰은中央公園運動場에서 二十七日午後四時부터 開始一〇對一로龍鐵敗北

今夜

午後七時、京城運動場에서

拳鬪大會最終幕

民家燒失千二百

二十六日奉吉線草市에서

豹、長引率土兵이衝火

【奉天電話聯合】 철로총국(鐵路總局)입전에의하면이십륙일 저녁에 봉길선초시(奉吉線草市)에표장(豹、長)의한휴반만군이 습격하야 와서큰략탈을한 까닭에 산성진(山城鎭) 수비대가 급행하야격퇴식혓는데 민가소실된것이 일천이백 삼십호나된다고한다

歷史기픈舊舍惜別

"大普成"今日移搬

五百餘學生이長蛇列지어 東郊新校舍로行進

경영의전문학교로 단하나인 시내송현동의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는 거금삼십년전광무구년에 창립하야 그간갖은곤난을당하면서 발전에발전을 거듭하야 오든중에 그간송현동교사에서길러난 졸업생은 임이조선사회의 각방면에서 활약하는일군도 만코 재학생수효도이백에서 삼백으로 삼백에서오백오십여명으로 현재는 내부의정돈 재학생 졸업생의 활약과아올너 보성전문은 과거의력사를 대하야 놀날만한발전을보엿다 그러나그간에교사의협착재정의다소곤난을당하든이학교에 이번전에고김기중(金祺中)씨와 김성수(金性洙)씨가 거액의재산을 회사하자 작년여름부터시외 안암리(安岩里)동광이 명미한곳을 골나서칠만여평의 기지를정하고 총공사비 십칠만원을 드린 본관이이달에 낙성되엿다 건축은 근대고딕식으로 총연평일천백팔십팔평의조사층교사(一部六階)로만 반석비가 완전한 근대건축의정화이다 신교사의 락성과동시에 이십팔일 오전아홉시반 전교학생과 관계자들은 십삼년간이나 몸어잇든낡고 또 헐은 송현구교사서 별식을 마치고떠나기 앗가워하는 법,상(法、商)오백학생은재단법인 보성전문학교(財團法人普成專門學校)라는 력사긴간판을선두에 걸머지고 동교운동부의자랑인 우승컵과 우승긔십여개를들고 행렬을지어 원기왕성하게 종로로동대문을등지고 시외안암리 신교사까지 행진하야간단한 이전식을맛치고 십월이일부터 새교사에서 수업을시작할터이라고한다 락성식은 동교삼십주년 기념사업의도서관대강당,체육관의완성과아올너 성대하게거행하기로하얏다

‖사진은안암리신교사(상) 시외로행진하는보성학생(하)‖

남의女子假結婚

안해식여중매하고

生活難이나은悲喜劇

극도의 곤궁은 드디여그들로하여금 죄를범하게하엿다 시내와룡동(臥龍洞)이십이번지에살든 최경식(崔璟植)(四〇)은 이십칠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영리유괴죄(營利誘拐)로 징역일년에 구형을바덧다 그는그의안해 김복동(金福童)과 전기 와룡동에서 가치살다가 지난칠월 〃 집주인에게 집을빌어주게 되엿는데이사할비용이업서서 곤궁하든 나머지에 안해와 서로공모하고시내인의동(仁義洞)소야(小野)란사외집에식모로잇는 김순례(金順禮)(一九)에게 결혼을청하야제안해의 중매로 그녀자를선을보고 가치살자고 꾀여내여서내창신동(昌信洞)으로 데리고 가서 사흘밤동안 가치잇게를 한뒤에 서로 가치살라면 세시집을한채를 구해야할터이니 돈을좀구해오라고 권고하야 그녀자가 리모(李某)의 집에고용으로 살기로 약속하고 팔월이일에돈이십원을 빌어왓다 그는그돈을바더가지고 써버릴려다가 마츰내전후사실이 발각되여 즉시체포되엿든것이라한다

敦岩里強盜는 失足者의誣告

지난십사일밤 아홉시에 시외돈암리(敦岩里) 가도에서 곤봉으로마젓다고 머리가터지여 류혈이길바닥에 텁리하야 보기에도무시무시하든 양주군로해면 하계리(楊州郡蘆海面下溪里)길홍진(吉弘鎭)(三〇)은 그후 동대문서에서 강도에게 자기의수건을빼앗겻다는등 돈을 빼앗겻다는등 강도에게 마젓다고 하얏스나진술이 불일하야 도모지 암길이업더니 최근에와서 길홍진은생활난에 쫏기다가 시내남대문시장뒤 누구의집에 고용사리하는자기부처를 보려왓스나 그도종시맛나지 못하고 도라가는길에실수하야넘어진바람이라근처에잇는돌을움어자기의 머리를 자기손으로 때려서 그리된것이라고자백하얏다 이로써허위고발이되여동서에서는구류십일간의즉결처분하얏다

天氣豫報

晴後曇

高氣壓은 朝鮮及日本內陸으로퍼지고잇스나 그勢力은弱하고 中國內陸及北滿에는氣壓이얏다 全朝鮮은晴雲不定하고 바람은一般으로弱하다 明日은차츰흐리리라

昨日氣溫

最高 二六、〇

最低 一四、八

今日正午 二三、四

時計及蓄音器完全修理에對하야

京城府本町二丁目 標準時計 Ⓜ 村木時計店 電話本局四七一·四七二·四三七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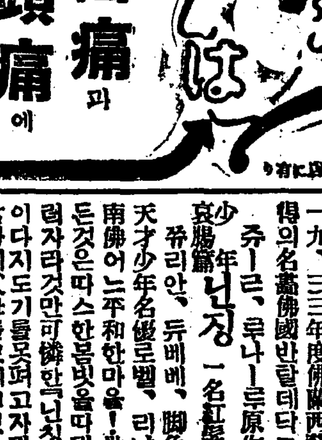
最新旋盤機가輸着되엿습니다。如何한難物時計라도最新旋盤機를使用하야破損部分品의補充에依함으로工作完全修理가되나니今般帝都에잇서日本一이라稱하는時計修理大先生數名을招聘하엿습니다 아모조록時計及蓄音器의修理는 村木으로 急하신분은곳하여드립니다。 通知하시면곳往訪 弊店은從業總員八十名이全力으로써奮鬪하고잇습니다 指輪、帶止類其他金細工도합니다

慢性淋病의新療法 實驗冊子進呈

▼…慢性淋病、무서울것업다。곧저이體驗實驗의산例를보라。 ▼…아지못한새에는如何튼그를아는때가吉日 機會는차자왓다。곳보라。 ▼…오랜苦惱가消滅된實例、快治의實話許判의新療法은이一冊에公開되다。 東京市赤坂局私書函一四 帝國醫學社 에二錢切手同封申込하시라。

恩給 救濟的大特異 方法立替 京城笠井町一五〇 富國昌業社

回効散 齒痛과 頭痛에 먹으면낫어 神經痛鎭定、神經衰弱强壯、神經痛 무마지ㅅ等 奏効優秀 泣顔도 笑顔으로變합 本舖 東京 大阪 森田製藥所



九月二十七日낫부터 一日曜日祝祭日은三回興行 一九、三三年度佛國西藝術賞獲得의名畵佛國반탈데다그製作 쥬ー르、르나ー르原作 少年哀腸篇 닌징 一名紅髮 全十卷 쮸리안、듀베베、脚色監督 天才少年名優로벨、리난君主演 南佛어느平和한마을! 世上에모든것은따스한봄빗을따라무럭무럭자라건만可憐한「닌징」만은왜이다지도기를못펴고자라는지! 남가티父母의사랑을밧지못하고자라는「닌징」 ㅣ애기를기르시는아버지、어머니、그리고父母를섬기는어린이들에게큰敎訓을드릴것입니다 少年映畵完璧篇! M·G·M社超特作 삼、웃드氏、監督 靑春의戱弄 全九卷 쿠라크、게볼、진하ー로主演 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三六

●簿記珠算商業科(晝夜各五十名六ケ月卒業) 中等公民學校專科 生徒募集 願書締切十月七日迄 出願順詮衡許可ス 京城 本校ハ中等科商業專科綜合 朝鮮唯一ノ公民教育機關ナリ 學則要郵券 太平通大漢門橫

書籍 新本古書特賣目錄郵券三錢。昭和九年圖書分類目錄四六判三八二頁郵券十錢要함 古本高價買入御親次第參上 京城府明治町 電本三三二七番 金剛堂書店

純正商標見本 世昌 直輸入販賣商 仁川府支那町 同福公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總販賣店 京城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五一三番

秋期新入會員大募集 燈火可親의時節! 우리農村靑少年一年一遇의讀書의好季節 農業講義錄 第一號 作物汎論 普通作物 第二號 蔬菜園藝 栽桑 第三號 土壤 養蠶 林業 第四號 肥料 特用作物 家禽 第五號 家畜 果樹園藝 第六號 農村副業 農業經濟 會費 全額一時拂(六冊)三圓五十錢 每月拂(一冊)七十錢 內容見本無代贈呈 今秋에이機會를일치말지어다 明春에는훌륭한農業技術員 京城桂洞一四〇 朝鮮農事學會 電話光化門一七四一 振替京城七五四二

독일제 원조 조선세창갓표바늘은 물끼잇는손으로(강줄)문대도조금도변치안는것이특색입니다 근래각지방소매상에서 서왕위조품취급하는일이잇사오니 사실때에는반드시세창침에주의하야주시압

16미리 出張撮影 岡本映畵部 TEL.2398

高等普通學科講義 立身出世의近道 秋期新學期學員大募集 此際普通科新入生에게는特典으로其次號一冊을無代로配付하며、且兩科를通하야誠實勤勉者에게는各其學年末에相當한講義錄一冊을無代로贈與하는特典을設함 우리朝鮮人本位의唯一한中等講義錄이며朝鮮語漢文學科가잇는것과他講義錄에比하야會費도거의半分임을注意하라 新學期開講 入學의好期 學則內容見本請求即時無代送呈 外에獨學通信每月無代進呈 普通學校 五六學年 學科講義 高等科 三十冊 一冊 六十錢 二個年卒業 速修 普通科 十二冊 一冊 五十錢 一個年卒業 隨意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電話光化門一八八四番 振替口座京城八八九五番

學藝와家庭

朝鮮藝苑에檄함!

藝術各部門에서주고밧는글 (11)

智的水準을놉히라

=創作家에게=

曹喜淳

나는하漠然하나마 藝術의動機를 이러케規定할수잇스리라고생각한다。모든時代、모든國民의 偉大한藝術家은 떠옥偉大한作家는 그들의創作的活動의根本動機도 다음과가튼 心的要求에 應할수잇슴을

希 願하는것이다。即나는 어떠케해서 내自身을解放할수잇나? 나를解放해서、써내自身以外의 即내作品을 享樂하고 鑑賞하는 모든다른사람들을 日常의苦惱에서 解放할수잇나? 어떠케해서나는 가장安全하게 生을享有하게 또가장完全하게 가장容易有한때부터 내게膠着된 慣性을 脫却할수잇나? 다시말하면 어떠케해서 모든것에서淨化되어서 그리하야理想에더한거룩가까운 純化된感情을 獲得할수잇나? 어떠케하면

人 間의存在를 더놉게할수잇나? 더한층노픈道義로 引導라는意味에잇서서어떠케하면 人間의存在를 놉게할수가잇나?

이와가튼 解放의動機가 모든藝術家의創作에對한 根本動機가되것이다。그리고 각각서로다른 偉大한藝術家들은 서로다각가다른過程을 밟부면서 이와가튼 動機를 遂行한것이다。例를드러서 몃사람의偉大한藝術家를보자『톨스토이』는 本能生活의 抹殺에依하야 따라서거기에

基 礎를둔 斷食의倫理에依하야 이것을遂行한것이다。또『메-텔링끄』는 넷날의神秘學者를模倣해서 自己自身과 自己自身의靈魂中으로기피드러가서 거기서 神靈的存在와 融合할려고한것이다。

『에미-촐라』는 이에反하야우리의 視野를 現實로 向케한다。그는 實生活을 描寫하야 이것을보라! 現實은 이와갓다。그러코 이것에反하는것은 何等의所得이업다!라고 부르짓는다。『입센』은 어떠냐?그는

眞 實과正義가 잇서서야만 人間相互의交通에잇서서 비로소 새로운社會가 建設된다고하고잇다。

事實 이와가티 偉大한文學者들을 對할때에 나는 그들의文章뒤에 숨어잇는 뜨거운熱情과 淨化된 高尙한感情을 안느낄수업다。그들의 藝術은 決코 娛樂的 遊興的 餘技的이아니다。그들의 피와땀 그들의모든精神의表現인것이다。即그들의 生命그것이다。

내가 貴重한紙面을 비러서 이와가튼 文學幼稚園兒도

能 히짐작할만한 妄言에 가까운 數言을羅列한것은 或은 우리文壇諸氏의冷笑를 닙을지모르나 그러나萬若이와가튼 極히 初步的 知識을 모르는 文壇人이 업다면 웨 이가튼것도 모르는것가티 보히는 文壇人이 種種잇느냐라고 反問할수잇기때문이다。글이라고쓰면 그것이다文學的價値가 잇는것이아니다。소설이라고 몃個만쓰면、바로作家가될것인가?우리네의일이라 무엇이든 몃個만쓰면

文 士待接을 바드니까、쓰는사람의미음은 편하겟지마는 그것을읽는讀者、또는鑑賞하는 사람으로보아서는 정말참을수업는일이다。事實 우리文壇에는 文學의冒瀆에 가까운作品(?)이 意氣揚揚하게 濶步하고 잇잔나?나는 이러한作品(?)을 對할때마다 이作者의人生觀을 좀드럿으면 또그이가 그作品을쓰때기까지에 얼마만한憂鬱을가젓는가를뭇고십다。勿論이런것이發表될에는

編 輯者諸氏의責任도 잇겟지마는 돈버리하는잇사람들이아 別問題도하고도이러한作家들을위하야 文學初步理論講習所를 한個設立하고또文壇最高裁判所를 한個가지면 우리文壇도 조곰水準이 놉하지지안흘까。紙面關係도 잇거니와 또더머 떠벌여노앗다가는 여러분의 꾸지람이 써밀것이니까 이以上길게말하지안치마는 何如間 先頭에말한것과가튼 ─ 勿論이것이 筆者一個人의愚論일지모르나 ─

或 은 動機에서出發한가보고 이에가까운解放이 누가읫든지、그作品속에우리로하여금 肯首식하고 생각케할무엇인가가 숨어잇는即眞摯한態度로 人生을 森宇宙를觀察코 解剖하는作品이 나오기만바래고 비는바이다

어린太公들 (울그림자)

막심、고-리키-의 文學修業의途程 (4)

咸大勳

이詩를 나는쉽사리쓰엇스나-그것은 失望하리마치 되지안엇섯다、自己의 拙劣과才能이업는것을 나

自身 이얏다 (엄호게생각하 나는『푸-쉬킨』『레르몬톱호』『네크라-솝호』 그리고『베란주』의 譯詩를 읽어보고서 自己가그中의그누구에게도 類似하지안는것을 잘알게되엿다、散文을決心도업서젓다 나는 어찌엘인지 散文을 어려운것이라고생각하엿다 그래두 그後 어째스든 散文을 써보려고決心하엿다 그러나 文體는 아모래도 내게는簡單한것가티 생각되든『韻文』調를 選擇하엿다、나의最初의 크다라한 散文詩『老樫木의노래』는『카로렌코』로부터 數言으로서 徹底하게 撲殺되엿다

그래도 나의

韻文 癖은 ㄱ치지안엇다。數年後에『카로렌코』는 나의短篇小說『아르히프』를 稱讚해주엇지만 그는 添加하여『어쩐지詩가튼調』가 이小說을 오히려 나쁘게만드럿다고 내게말하엿다 그때나는 그의하는말을 밋지안엇지만 집에도라와 다시읽어보고서 복으러워젓다、나의文章은 그呪咀할『韻文내음새』로 充溢해잇섯다、이韻文調는 그後도 오래人동안 내가쓰는小說에 不知不識間에 부터다니엇섯다、나는 小說의처음始作을 무슨노래가튼文句로서 시작한다、말의 아름다움을 차저서나는正確한描寫에 反한文章을썻다。그때문에 物體의形體가 正當하게 取扱되지못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엿섯다

眞實과 藝術의 追眞性

나의小說『廿六人과一人』에對해서 말하면서『렝호를스토오이』는『君의스토-리의 쯧는方法은 잘못되엿는데……』하고注意를식혀주엇다。참말 스토-리의火影은 거긔에내가쓴것가티 勞働者의그림자를 빗최엿슬理가업다『안톤•체홉호』는 나의『파마•가르데-엔호』에 나오는女主人公『메두인스카야』에 對하서 말을하엿다『그여자에게는 귀가세이잇다 하나는 러아래……보시오』 그것은 참말이엿다、나는 그女子를못난

姿勢 로써 뒤빗에向하여 안기워노코描寫하엿다。이러케 조곰만생각하면 些細한것이라고생각되는 잘못도 實相은 크다란意義를 가지는 것이다、그것은 그것이 藝術의迫眞性을 破壞하므로써다、모-두適確한말을 發見하여僅少한語數로써 만흔것을말하게시리 配列한다는것은 至難한일이다、『말에는 만흔場所를 주지말고 思想에게 廣濶한자리를 주어라!』文章으로서 산姿想을 賦與하고 그描寫된形象의 基本的인 特徵을 簡單하고 明確하게하여 人物의음즉임과 會話를

讀者 의 記憶가운데에 直時定着케함에는 참으로 難事인것이다。文章으로써 人間과物體를『修飾해』내이는것과『룰스토오이』의『戰爭과平和』가운데 자주자주볼수잇는것가티 거귀 描寫된 人間과物體를 손으로 만저보고십도록生生하게『成形的』으로 描寫해내기는 全혀別個의일이다

×

어떠때 나는 中央로시아의 시골邑의外貌를 數言으로써表現할 必要가잇섯다 그리하여 다음과가튼 말을選擇하야 그것을

配 列하기까지 적어두서時間이걸렷다

『구불구불한平野는 채죽에마진 지렁이와도가티 灰色길에 꿋차고 斑點과가튼 시골邑『오쿠-롭호』市는 平野맨가운데에 -커-다란 주름살잡힌손바닥우에노인 手工드린 玩具와가티 누어잇다……』

나는 잘쓴것가티 생각이되엿지만 小說이 印刷되엿슬때에 다시읽어보니 거긔서엇은것은『叙切型』의 무슨菓子갑가튼것을 보는것가텃다

法律顧問

他人所有地에 家屋建築할수잇소

問 甲에所有地는後面 乙에所有地는 前面인데 甲이家屋을 建築하되 乙에所有地를前面을 六尺假量남기고 建築하게되엿는데 萬若 後日乙이自己에所有라고 木柵其他 植木을한다면 全혀 無用의廢家가되겟으니 法律上制止할수업슬까요 (六尺假量 前面直線된土地는販賣치안습니다) (경이포 리창록)

答 제지할수업습니다 (辯護士 辛泰嶽)

對米關係五十年史

米國初期의對韓政策 (62)

湖岩

廢立陰謀와 上院議員

=淸=國은天津條約(一八八五年)에依하야 中島에서日本의 同等權利를 承認하엿스나 李鴻章은 朝鮮의 事態를 平穩하게 放任해버릴 意思는 아니엿다 그리하야 壬午軍變으로 三年前淸國에 護送되엇든 前執政大院君을 袁世凱와 함께 朝鮮에 돌려보냇다 大院君의 還歸는 朝鮮政治에도 다른 波紋을 이르켯다(註 壬午軍變을 煽動한 張本人은 大院君인데 排外派의利益을괴하며 또한米國과 英國과의 條約을 反對하는것이 그目的이엿다)

=大= 院君은 비록 다른 外國人과同樣으로 淸國人까지도驅逐할 排他主義者이엿스나 實利的人物이라 暫時는 淸國과 어울려 日本과및 그他國家를反對하야 堂堂하게 一大勝負를 決하는것도 辭讓치 아니하엿다 그는도한 王妃와 王妃가屬한 閔家의 公然한 政敵이엿슴으로 그의還歸는 閔一派에게 刺戟을 주는것은 勿論이오淸國의 朝鮮支配를 抗拒하는王妃의勢力을 꺽그려함이다 그때李鴻章은 아마 그외地位를 充分히 保障하며 王妃를 抑制할수잇슬줄로 생각하엿다 一八八六年여름에 大院君은 袁世凱의 參謀와 援助를 빌어서 國王王妃및 王世子를幽囚하야 廢立을行한後 王의長孫을

=世= 子로對하고 自己自身이 다시 執政이되어 統治하려는目的을 가지고 一種의陰謀를 꾸몃다。비록保守的이나 大膽코 親淸派이엿고 閔氏一族에 對한忠誠도 누구만 못하지안흔 閔泳翊으로 因하야 이陰謀는 구만失敗에 도라가고말앗다。(註 當時朝鮮에 잇든西洋人들은 누구나 다잘알든 이陰謀에 關하야 詳細한內容은『떼니』가 一八八八年二月三日刊行의『淸韓論』이란 一小冊子속에 發表하엿다 이것이『오레곤』州選出上議員『미첼』(Mitchell)의 演說中에 挿入되어 一八八八年八月三十一日 國會議事錄에 印刷되엿다。『떼니』는 그後上院議員『미첼』에게 自己가 李鴻章에게서 바든待遇에對하야 不平을말하엿슴으로『미첼』議員은 米韓外交通信에 關한 發表를 要求하는決議와함께 淸國의朝鮮干涉에對한 問題를 提出하엿다『미첼』는 그뿐아니라 支那移民問題를 討議하는中에서도淸國을 信用하지안키를 希望한듯하다『미첼』의 決議는 外交關係委員에게 附托하엿스나 그後에는 다시 나오지 안엇다 그때米國政府는 朝鮮問題를 上院호은 그他에서하는 討議案中으로 부터除外하엿든 것이니 이것은 아마 移民問題로 頻繁되어漸漸커지는 排淸的偏見을 될수잇는대로 緩和시키려는때문이엿던것 갓다)

『포-크』는 自己가 日本에到着한後는 疑心업시 自己의外交的任務를 解除되리라고 생각하엿스나 새公使는 아주絕望的으로

=不= 適任者인것이 判明되야 暴動未遂의 危期中에自己의責務를 遂行하지 못하게 되엇다 이러한事情을 알게되자『파커』는 即時解任되어軍艦을타고 朝鮮을 떠낫스며『포-크』는 海底電信으로 朝鮮에 다시도라가서 公使館의 責任을 마트라는 指令을 바덧다。『포-크』는 如前히 不健康하엿스며 또한 八個月前에그가告白한 外交的無能도 아즉그대로 남어잇섯다 그는 袁世凱의 敵意와『떼니』의 猜忌와 英淸聯合의反對와 李鴻章의 嫌忌를 바엇섯스되 任命바든대로 京城에도라왓다。一八八七年 일은봄에 暫時休暇를 어든以外에는『포-크』는 同年七月까지 머물러 잇섯다

童話 쾨리잘부는어쇠 (四)

盧良根

얼마를걸어서 헐떡헐떡하면서한 산고개마루턱에 올나서니숨이차고 땀은 나고하야잠간고개마루턱에서 쉬여가려라생각하고 마츰길옆에잇는큰잣나무밋에안저 땀을들리고잇는데 아-이게또웬일입니까?억쇠안진 바로뒤쪽에서 버석버석 가다포기 헤치는소리가남으로 얼는도라다보니 호랑이한놈등잔가치 번쩍번쩍하는눈알을 굴리면서 억쇠에게로오지안켓습니까?

억쇠는 미처될수도업고 어찌하나-하고 잠간동안 머뭇거리다가 필경은 그잣나무로엉금엉금기여올나가구야말엇습니다。억쇠가 나무른기여올나가는것을 본호랑이는 쫀차올나가려고 앞발을드렷다놋다하면서。이리뻥뻥저리뻥뻥돌면서야단을첫지만 결국은나가지는못하고 대가리와 몸통이로잣나무를막쓰러드릴작정인지 함부로대고 비비는데 그큰잣나무가꼭대기까지 휘청휘청 흔들니는 바람에 억쇠는 나무가지를단단히 붓잡고 벌벌잔득겁을가고달녀잇지오!호랑이는 배가몹시고파서 이리저리헤매다가 마츰사람냄새를맛고 한밥맛잇다하고슬금슬금오다가 사람이그만 나무꼭대기로기여올나감으로 풀이잔뜩나서 그러케야단을첫지만 한참그리고나니 아무리기운센 호랑이란놈이라도 내종에는 기운이빠져서 나무미테 푹쭈리고 저버렷습니다。

억쇠는『한시밧비 집으로도라가야간난이어머니에게 약을드릴텐데……저원수의것이 도저히켓절녀안즈니 어찌해야조탐!』하고 생각하니 그만 가슴에서물이입어나는것처럼 조바심을칠만치 답답하고 화가치밀어못견되엇습니다。이럴때놀하는 버릇으로 억쇠는 피리를또불고십허저서 얼떨결에아까 노인이주든 그 은피리생각은짜바이저버리고 허리춤에 놀자고다니든 참대피리를차젓지만 자기가가지고 건너왓거니 ─만 생각하고잇든 참대피리를개울저편에서 옷벗을때 떠러트린것은 몰낫습니다 그래서 억쇠는 인젠 피리도못불고 어찌하나 ─하고생각하든찻헤

『올치! 로인이 주든 은피리! 가잇지 참그것좀불어보아야겟다!』하고 그제야 로인에게바든 은피리생각이나서 약주렴이속에 한데단단히 꾸러둔 은피리를 끄내서 조곰불어보니 파면 참대피리는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라는듯이 소리가 써아롭답게나거든요。그래 억쇠는 기뻐서 다른생각은다이저버리고

『날니리 날니리』하고 아조청아스럽게 나무 꼭대기에서 은피리를 불고 잇지오 그러케 정신업시 얼마를 불다가 아래놈의호랑이가 갓나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웬걸 호랑이는 가기커녕 어느새 잠이들엇는지 나무미테 대가리를 드려박고쓰러저서 코를드르렁드르렁골며 자고잇섯습니다。아마 배가곱흔데다가 한참이나 기운을써서야단을 친끄러라 피곤한중에 억쇠의은피리소리가 어찌조흔지 피리소리를듯다가 그만그자리에서 살그먼이 잠이들어버린모양이엇습니다。호랑이가 잠든것을안 억쇠는

『올타됏다、이런때 빨니도망질을 치지안으면 오늘밤은이나무우에서 새우게될터이니… 내가 오늘밤안으로 도라가지못하면 간난어머니는 도라가실는지도모른다!』하고 살금살금나무아래로 소리나지안케내려오는데 나무아래서

『왜좀더불구려 ─』하고 말소리가나지오 억쇠는 이소리를듯자 그만빨올업는 옴스리고

『에-』할 호랑이도 말을하누나』하고 호랑이가말한줄만알고 나무아래를 다시 자세히 나려다보니 호랑이가아니라 언제왓는지 모르게 히끗히끗사람들이 한 대여섯우둥서 잇는것이 보엿습니다 억쇠는 그사람들이 무슨사람들인지몰나서 엇는대답놓못하고 고망섯망하고잇섯는데그사람들인기척에놀나깨엇는지아-나무밋에서 자고잇든호랑이란놈이『아-○』하고그들에게 달겨들엇읍니다。그들은 나무밋에호랑이가자고잇는줄을천만뜻밧게 생각도아니하엿는데 호랑이가 명버들므로 기겁을해서이리저리 잡간동안호려젓으나꼿다시모여들어 호랑이를에워싸고 어듸서난는지 칼과몽치로 찌르고치고 호랑이는이리뛰고 저리뛰고하면서울녀고텸비고 아닌밤중에산고개에서때아닌 큰싸홈이일어낫읍니다。

試寫室

佛國듀뷔뷔監督作品 『紅髮』(一名닌징)을 보고

……POIL DE CAROTTI……

XYZ生

쥬-르、루나-르原作 쥬리앙、듀뷔뷔監督의 『紅髮』(原名 Poil de Carotte 一名닌징)은 佛蘭西映畫를 어터보기어려운우리에게 오래간만에보내인선물이다 『듀뷔뷔』는 루나-르原作인戲曲을 映畫化한데對하야그누구나失敗한文藝作品을보담더살린點에잇서서 發聲映畫를 完全히藝術領域에올려노흔 貢獻者로서도 表彰할만하거니와 文藝映畫로서 原作에 比하야조곰도誇張도업시 高價한것을맨드른同時에 새로운길을여러노코 映畫藝術을 부르고잇다

微妙한人間心理의描寫 自然背景의選擇 俳優의演技 撮影技巧等 지금까지 映畫를본이에게『이것이映畫다』하고 내민것이다 더구나 主人公인少年俳優、로베에르、리낭君은 저-짝키쿠강、또는쿠퍼-의少年役보담도 어린映畫藝術家로서 品格이놉헛슴이 이또한이映畫의監督、듀뷔뷔氏의名手法에依함이라할수잇다 (二十七日부터朝劇上映)

朝鮮日報學藝部主催

하로를즐겁게 놀수잇습니다

家庭婦人들노리大會

餘興은밤줍기寶探、福주머니外 자미잇는競技와노리가만습니다

時日 十月七日(日)

場所 議政府(고든골)

會費 七十錢 來往車費까지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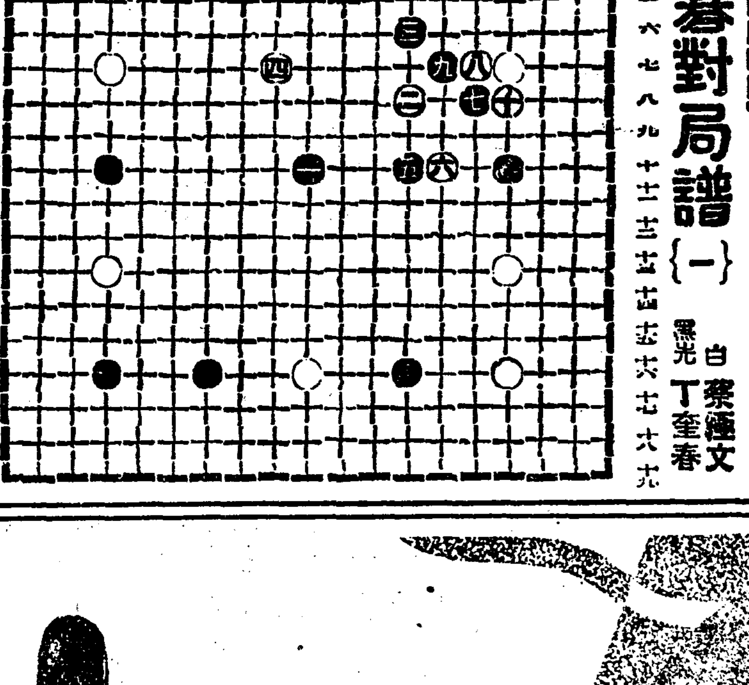
詳細한것은明日本面에發表

◇本社主催◇

國手選拔 圍碁對局譜 (一)

白 蔡應文 黑光 丁奎春

略符=〈□百△●二百•◎三百〉



(● 一)癸의十(〇 二)庚의八(● 三)庚의六(〇 四)子의七
(● 五)庚의十(〇 六)己의十(● 七)戊의八(〇 八)戊의七
(● 九)己의七(〇 十)丁의八

◇對局者談 =白 庚의八 先番着에對하야 黑이 庚의十으로 對抗할때 白은 庚의十二로 順應함이 可할듯하고 己의十으로 折衝함은 到底히 不可能하다고 생각하니 大抵 碁之行道가 隨機應變이나 逼近 折衝이 決不如緩和順應이다 黑이 戊의八로 己의十 白을 對應함은 冗俗에近한듯하니 巳의十一로 防禦를하든지 丁의十三 白將點背後 丙의十三으로 壓着하야 丁의十 黑將點을 自衛만하야두면 黑의 進展的希望이 不知中 發現될것이다

新刊紹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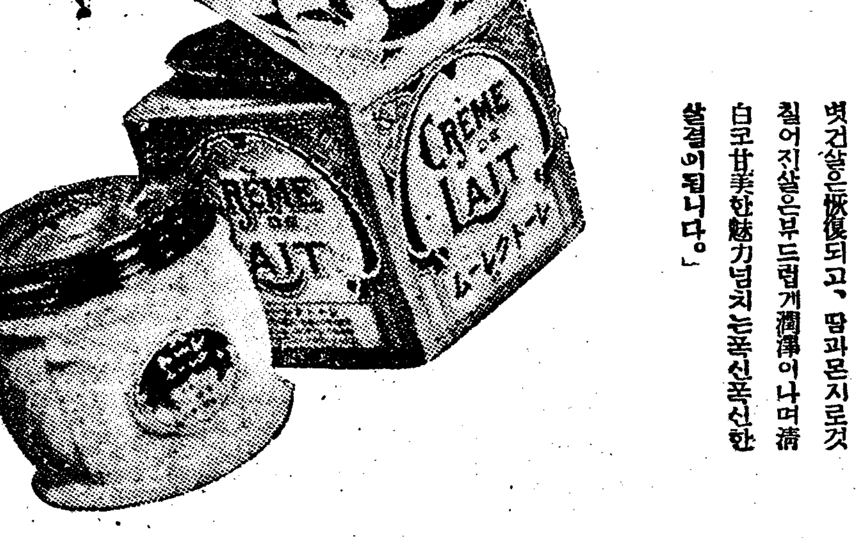
▲セルパン十月號 軍備ト財政─支那ノ言ヒ分、蘇聯加入問題ト東方政策、東京市電罷業ノ防戰、ロオレンスト生活ジテ二科座談會、蘇論國境オ瀕行ス、作家ノ轉向問題、文學的リベラリズム等 東京市麴町區番町一番地第一書房發行 振替東京六四二一二三番定價二十錢

▲安眠島 林省三著 東京市板橋區小竹町二二六四一日本力行會發行 振替東京六八八一 定價五十錢

レートクレーム

(레도크림)

爽快한感觸!
기름나지안는살결에
볏에거친살결에
아조신선한
淸白美容料
レートクレーム!



볏에걸어진 살결을
淸白케하는 レートクレーム
只今이! 本品 レートクレーム 씨-는
를活用할季節

海水浴과、登山、外出로살이걸고간、땀、몬지로것칠어진살결을곳치는것은只今입니다。レートクレーム를꾸질더발느시면 볏건살은恢復되고、땀과몬지로것칠어진살은부드럽게潤澤이나며淸白코甘美한魅力넘치는폭신폭신한 살결이됩니다。」

東京 平尾贊平商店

三南水害義捐金品

▲本社接受=二十八日正午까지整理分▼

現金累計 三萬五千八百五十六圓九十八錢

物品累計 七萬九千三百五十四點

在京都朝鮮人自動車運轉手親睦會

京都市上京區小山花木町五一

一金二十四圓

內譯

五圓 李得求　二圓 鄭萬和　一圓 郭尙洙　一圓 白淳兌　一圓 尹蕙炳　一圓 李文錄　一圓 林鍾得　一圓 李台得　一圓 姜敎仲　一圓 金成燦　一圓 李年雨　一圓 權五運

一圓 李進鉉　一圓 李正稙　五十錢 金泰俊　五十錢 高光勳　五十錢 金季求　五十錢 崔相鶴　五十錢 文永浩　五十錢 金鍾福　五十錢 南德仁　五十錢 徐致得　五十錢 趙龍衍　五十錢 金山中

新作路農村振興會

振威郡平澤面碑前里

一金五圓

內譯

一圓 鄭奭謨　一圓 洪恩俊　二十錢 丁在喆　二十錢 趙翔基　十錢 玄禹善　五錢 李範鎭　五錢 金龍周　十錢 崔允京　十錢 金義植　十錢 李廣根　十錢 金萬㞯　五錢 朴漢吉　十錢 宋錫弼　十錢 宋榮甲　十錢 朴永稷　十錢 金用石

五錢 趙周性　五錢 丁仲烈　十錢 裵根實　五錢 朴德　十錢 朴壽敬　二十錢 金士俊　十錢 金士鉉　十錢 金炳雲　十錢 李滿鶴　十錢 朴相鎭　十錢 崔天命　五錢 方允奉　十錢 金學甫　二十錢 朴順實　十錢 李商淵　十錢 靑秉德

五十錢 金與淳商店　五十錢 白永基商店　五十錢 曺嘉明商店　三十錢 姜魯煥理髮館　五十錢 李潤雨商店　五十錢 李相林　五十錢 金宗萬　五十錢 林天奎　五十錢 金虎貴　五十錢 崔章烈　五十錢 崔鍾烈　五十錢 李鍾鶴　五十錢 申萬淳　五十錢 申東奎　五十錢 申洪淳　三十錢 趙仁行酒造場　三十錢 金榮圭　三十錢 李鍾武　三十五錢 朴恒來　二十錢 李寬俊　二十錢 鄭桂月　二十錢 鄭鳳雲　二十錢 金滿河　二十錢 朴益先　二十錢 李圭敎　二十錢 韓類錫　二十錢 金炯辰　二十錢 李海駿　二十錢 金鎭浩　二十錢 鄭元學　二十錢 任相宰　二十錢 安淵碩　二十錢 姜信雁　二十錢 韓顯錫

二十錢 李炳翊　二十錢 金一俊　二十錢 金仁鍾商店　二十錢 具守德藥房　十五錢 申東斗　十二錢 金炯甲　十錢 金貞熙　十錢 趙成潤　十錢 李載鐵　十錢 金綻　十錢 申昌變　十錢 金斗植　十錢 具光會　十錢 具滋成　十錢 韓重敎　十錢 慶夏善　十錢 安鍾大　十錢 申達湜　十錢 崔涑鏞　五錢 金鎭科　五錢 羅英子　五錢 金洪文　五錢 黃丁淵　五錢 金容德　五錢 李甲得　五錢 靑珠珊　五錢 金東奎　五錢 金萬一　五錢 金漢培　五錢 金百奎　五錢 羅太一　五錢 沈鳳雲　五錢 金敬才　五錢 金鳳仙

本社黃州支局經由分

一金二十三圓五十三錢

內譯

九圓七十錢 黃州私立養性學校生徒一同

五圓 黃州基督勉勵青年會

一圓八十三錢 黃州長老敎夏期兒童聖經學校職員一同

二圓 黃州驛前 朴用緖

一圓 黃州金融組合 金斗成　一圓 李文淑　一圓 李昌植　一圓 洪性俊　五十錢 任亨淳　五十錢 金利玉

本社春川支局經由分

一金七圓

內譯 春川邑內業界一同

一圓 趙基澤　二十錢 尹致澤　一圓 車鎭舜　三十錢 金顯柱　二圓 曺秉益　五十錢 潘斗模

三十錢 金振鎬　三十錢 金文熙　二十錢 張武相　五十錢 李壯濂　三十錢 都元鳳　三十錢 朴東涉　二十錢 柳濟澤　二十錢 金鳳石

本報蔚山支局經由分(第三回)

一金二圓

內譯

五十錢 嚴南斗　二十五錢 李鍾崑　十五錢 申仁伊　二十錢 藤井外次郞

二十錢 安川熊吉　十錢 朴慶煥　二十錢 金鳳岐　二十錢 亭子鹽場　二十錢 金聖埰

本社庇仁分局經由分(第一回)

一金二十一圓九十二錢 (送料十九錢除함)

內譯

三圓 金南稷酒造場　一圓 [illegible]

一圓 金炯基　一圓 金炯喆

本社元山支局經由分(第四回)

一金七十五圓十八錢

物品一百七十四點

內譯

二十二圓五十八錢 元山中央敎友會一同

九圓七十八錢 樓氏普通學校生一同

十圓五十一錢 明沙十里鮮敎會敎友一同

三圓 元山館橋洞敎會敎友一同

元山明星學院一同

五錢 金龍文　三錢 金順女　十錢 尹明順　五錢 李玉姬　五錢 金福順　十錢 李龍女　五錢 鄭任淳　五錢 尹点孫　十錢 金周世　五錢 崔春奎　五錢 金慶善　五錢 朴昌燁　五錢 黃龍鉉　十錢 梁順女　四錢 金德禮　五錢 姜福女　三錢 李貞子　五錢 崔明元　五錢 洪範好　三錢 權炳燁　四錢 韓永淑　三錢 金小琅　十錢 趙敬月　五錢 崔壽福　二錢 張福國　五錢 權成子　五錢 鄭有鳳　五錢 金成國　五錢 韓君範　十錢 朴三女

五錢 金銀子　三錢 安炳禮　十錢 白文濟　五錢 洪異粉　五錢 李仁洙　三錢 金鳳淑　四錢 趙福萬　五錢 金金淑　五錢 韓恩姬　五錢 金鳳女　十五錢 田壽一　五錢 韓義粉　五錢 安錦珠　十錢 李貞洙　五錢 崔福女　五錢 崔貞淑　三錢 李車女　十錢 李鳳菊　五錢 崔寅夏　五錢 李昌吉　五錢 朴秉九　三錢 金炯淳　五錢 韓永煥　五錢 李仁秀　五錢 李福英　五錢 崔禮分　五錢 韓岩女　五錢 金鳳女　五錢 徐廷淑　五錢 徐福女　十錢 金基德

六錢 李興周　五錢 崔海鶴　十錢 鄭元喆　五錢 趙一權　五錢 金炳模　五錢 鞠慶燮　五錢 徐廷郁　五錢 吳學洙　五錢 金光順　五錢 金順德　五錢 尹韓龍　五錢 金景順　五錢 黃蓮子　五錢 徐載弼　五錢 李元霦　五錢 智昌煥　五錢 趙南玉　五錢 周澈學　五錢 周澈聖　十錢 韓瑞一　五錢 韓永淑　五錢 李守德　五錢 金永才　五錢 崔喜達　四錢 李益鉉　五錢 崔永寶　五錢 楊德成　三錢 金石根　五錢 朱永贊　五錢 全永華　五錢 白基淑　五錢 趙貞淑　五錢 金尙龍　五錢 車基煥　五錢 金一龍　五錢 金雲鶴　五錢 金順熙　五錢 韓福禮

中央幼稚園 園長 金二坤 取扱分

一圓 康成玉　五十錢 媬姆

十錢 박석순　十錢 김복자　五錢 김현배　十錢 김경자　十錢 신현필　十錢 김대윤　十錢 림양숙　五十錢 최수복　十錢 공정화　十錢 최혜숙　三十錢 박봉실　二十錢 신명숙　二十錢 朴정녀　十錢 백영수　十錢 김명순　十錢 엄혜숙　十錢 리승환　十錢 린연복　十錢 홍순옥　十錢 최영철　十錢 서경숙　三十錢 한순범

五圓 安邊郡瑞谷面實城金鑛

三圓 實城金山事務所 郭炳纛

一圓 崔鳳屋　一圓 韓俊成　五十錢 崔吉敏　五十錢 金昇夏　五十錢 趙聖烈　五十錢 申元變　五十錢 李興實　五十錢 金大元　五十錢 徐炳吉　二十錢 張燦榮　二十錢 李春實　二十錢 吳京吉　十錢 張東昊　十錢 咸東熙　十錢 成中源　十錢 李東根　十錢 白樂星　十錢 韓柱文　十錢 黃在德　十錢 李相根　十錢 李相連　十錢 安道吉　十錢 安民星　十錢 安甲淳　十錢 李永化　十錢 李東徽　十錢 金炳洙　十錢 朴京善　十錢 李貞洛　十錢 劉奉祿　十錢 朴文奎　十錢 朴京希　十錢 李春變　十錢 張應變　十錢 金泰石　十錢 金泰奎　十錢 張千萬　十錢 李桂春　十錢 嚴應變　十錢 張文鎬　十錢 李元實　十錢 孔光變　十錢 韓月鉉　十錢 洪宗澤　十錢 梁允煥　十錢 韓成達　十錢 許順相　十錢 權重顯　十錢 權成龍　十錢 李石鎭　二十錢 金相淡　十錢 林鳳模　三十錢 沈元明　十錢 鄭雲河　五十錢 金元吉

安邊郡瑞谷 嚴升旭　五十一點 面下一里　六十三點 橋洞敎會敎友一同　元山舘一同　三點 元山中央幼稚園　七點 無名氏　五點 康民鎭　十三點 李福吉　十二點 無名氏　二十點 金仁都　明星學院生一同

本社一山支局經由分

一金三十五圓五十一錢

內譯 松浦面德耳里振興學院兒童一同

三錢 崔文容　三錢 崔武容　三錢 金鍾玉　三錢 金鍾煥　三錢 崔榮順　三錢 金義煥　三錢 金今烈　三錢 鄭今連　三錢 金弘彬

三錢 兪在勉　三錢 李点禮　三錢 全甲妊　三錢 李秀瓚　三錢 崔垣　三錢 崔聖容　三錢 金慶子　三錢 金順禮　三錢 金今煥　三錢 金榮順

四十錢 張錫基　十錢 金鎭學　十錢 李秀榮　十錢 金龍德　十錢 吳殷變　十錢 崔樂喆　十錢 李亨淳　十五錢 林秉玉　五十錢 崔興淑　二十錢 張在玉　十錢 崔興容　十錢 崔琓　十錢 崔貞淑　十錢 金基錫　十錢 林炯俊　二十錢 高重來　十錢 金順明　十錢 金鎭安　十錢 張敬錫　二十錢 陸鎭庸　五十錢 李相萬　六十錢 崔富容　二十錢 崔埈　十錢 林相俊　五錢 金鎭萬　十錢 金明烈　十錢 鄭壽連　十錢 李順天　十錢 崔義容

松浦面德耳里

二十錢 安泰業　十錢 金千興　十錢 兪鶴濬　十錢 盧秉九　十錢 金永國　十錢 兪環植　十錢 兪熙達　十錢 金東元　十錢 鄭興用　十錢 鄭興同　十錢 鄭弘植　十錢 姜喜遠　十錢 金東漢　十錢 兪榮植　十錢 張三福　十錢 安点奉　十錢 車福成　十錢 鄭順男　十錢 李坭山

一圓 松浦面德耳里 峨洋農村振興會員一同

一圓 松浦面九山里洞員一同

五十錢 李秉瓚　十錢 皮發順　十錢 皮敎煥　三十錢 皮元基　五十錢 李秉玉　二十錢 李範舒　三十錢 皮淵鎬　一圓 皮敎成　五十錢 林良俊　八十錢 崔鎭亨　十錢 崔聖澤　十錢 梁在億　五十錢 梁龍錫　二十錢 梁龍煥　五十錢 李信通　五十錢 皮敎元　十錢 皮永煥　十錢 李範俊　五錢 李範守　二十錢 皮点男　二十錢 皮永俊　二十錢 李秉環　十錢 皮敎三　二十錢 韓興先　三十錢 姜桑洙　十錢 朴先季　一圓 金聖福　十錢 梁昌煥　十錢 梁德煥　十錢 梁明煥

松浦面倉田里農村振興會員一同

十錢 梁榮煥　四十錢 梁億先　十錢 梁文煥　十錢 梁在先　十錢 梁在雲　十錢 梁在熙　十錢 金學成　十五錢 權哲淳　十錢 姜燦炯　十錢 金千云　十錢 李範洪　十錢 李基夏　十錢 李範㬐　十錢 李興福　十錢 方奉吉　十錢 洪興先　十錢 權鍾國　十錢 金凡辰　十錢 尹玉山　十錢 金萬學　十錢 金仕範　十錢 金漢達　十錢 徐泰鳳　十錢 黃銀汞　十錢 閔謹　十錢 黃丙夏　十錢 金健洙　十錢 具兎祖　十錢 洪今萬　十錢 金春山　十錢 黃性日　十錢 朴泰平　十錢 李相敦　十錢 李泰榮　十錢 宋元祚　十錢 金範鏞　十錢 朴建用　十錢 申俊明　十錢 朴泰雨　十錢 池道一　十錢 李石用　十錢 朴春先　十錢 金富吉　十錢 朴進先　十錢 趙泰民

松浦面法串里 土幕居住者一同

十錢 李春先　十錢 金富吉　十錢 朴進民　五十錢 趙泰民　十錢 皮碩天　十錢 李女宇　十錢 靑奎史　二圓 宜昌德　五十錢 李承在　十錢 黃學福　五十錢 朴昌性　十錢 李光勳　十錢 柳康萬　十錢 李仁善　十錢 黃仁化

一同 姜吉山　十錢 崔謹朝　二十錢 金富三　五錢 黃義福　十錢 白南允　三十錢 權云善　五錢 權仲業　十錢 金鍾煥　十錢 林永文　十錢 金明云　十錢 金鎭榮　十錢 李成權　五十錢 洪敎老　十錢 崔相東　五十錢 韓喆洙　十錢 安敎植　七十錢 崔奉來　十錢 盧敎來　五錢 金君一　四十錢 尹聖台　十錢 李永秀　五十錢 都學洙　十錢 田相根　五十錢 李秉順　十錢 吳錫禹

松浦面德耳里 韓山農村振興會員一同

五十錢 兪熙達

私立德林學校生徒一同

平南順川郡慈山面岐灘里

一金三圓九錢

內譯

二十錢 金東俊　二十錢 姜喜遠　二十錢 兪熙建　二十錢 李南洙　二十錢 李南卜　二十錢 兪春植　二十錢 鄭君七　五錢 金東元　五錢 兪環植　十錢 兪萬福　十錢 兪且植　十錢 李永山　十錢 金英鎭　十錢 兪得植　十錢 李永洙　十錢 金順國　十錢 張秉基　十錢 盧德九　十錢 兪榮鎭　十錢 安德秀　十錢 張慶煥　十錢 李洪載　十錢 鄭永植　十錢 兪君濟　十錢 鄭三三　十錢 張福

三錢 成基榮　四錢 李鎭洙　三錢 張珍洙　三錢 林昌模　五錢 林尙默　三錢 朴永鏘　四錢 康基煥　三錢 邊榮贊　三錢 文濟駿　三錢 崔仁煥　五錢 金俊善　三錢 弓孝煥　三錢 李鵬淑　三錢 林善周　四錢 金仙玉　三錢 宋山女

三錢 李孝淑　三錢 林鵬周　四錢 金善玉　三錢 宋仙女　三錢 盧如實　五錢 金在仲　三錢 崔基德　三錢 林時煥　五錢 弓仁煥　三錢 弓敬默　五錢 咸敬彬　三錢 咸秉璘　三錢 林能玉　三錢 林福榮　三錢 林學銓　三錢 崔明化　三錢 鄭文初　三錢 林日淳　三錢 元亨變　三錢 裵貞玉　三錢 林淑子　三錢 金應八　三錢 李永龍　三錢 李秉柱　三錢 林信甲　三錢 劉桓九　三錢 林麟周　三錢 林貞實　三錢 崔義官　三錢 金景俊　三錢 車

一圓二十錢 松浦面加佐里 村振興會員一同 唐晉農

一圓二十五錢 松浦面加佐里 村振興會員一同 斗新農

一圓二十錢 松浦面加佐里 村振興會員一同 栗里農

五錢 松浦面德耳里 倉田農村振興會員一同 金壽子　十錢 李吉祿　十錢 金東煥　十錢 崔明德　十錢 崔貴同　十錢 崔興業　十錢 崔元吉　十錢 皮萬卜　十錢 崔義夢　十錢 崔德元　十錢 崔鳳業　十錢 崔鳳植　十錢 趙貴哲　十錢 金乭伊　十錢 皮点卜

三錢 玉成福　三錢 玉永淑　四錢 崔明根　三錢 元應淑　五錢 康用紅　三錢 林應仁　三錢 林級周　三錢 朴孝植　四錢 林天洪　三錢 林明吳　三錢 安在顯　五錢 金炳漢　三錢 林采燁　三錢 林東周　四錢 鄭順煥　三錢 林聖杰　三錢 李應淑　三錢 林東模　五錢 鄭順默　三錢 林應淵　三錢 李南河　三錢 林良興　三錢 崔元模　三錢 林仁田　三錢 林利元　三錢 弓天洙　三錢 林元模　三錢 李仁榮　三錢 金澄實　四錢 林文鐵　三錢 洪基京　三錢 林滿喆　三錢 徐舜植　三錢 林祉洄　三錢 李顯貞　三錢 林泰福　三錢 李榮奎　三錢 崔榮化　三錢 林順吉　三錢 林在榮　三錢 朴在玉　三錢 金仁善　三錢 林在鎭　三錢 朴在錫

現金小計 一百九十四圓二十三錢

物品小計 一百七十四點

訂正

九月十九日附城津支局經由分中 一圓金性煥은 全性煥의誤植

九月十日附王餘廟朝鮮人民會支部中 金山玉一圓은二圓의誤植

九月十一日附 奉化支局經由分中 五十錢金炳佑는 全炳佑、五錢金泰燮은 金泰燮、五錢김규성은 김규승、一圓金永性은 全永性、一圓嚴桂植은 嚴柱植、一圓河龍岳은河龍岩、五十錢金泰元은 全泰元의誤植

九月十七日附 方峴支局經由分中 一圓今田勝一、一圓渡邊變一郞、十五錢李鍾祐三人漏落分追加發表코以下는訂正함

金浩兒은 金浩晃、金泰律은 金泰九、李蓮泰는 李蓮泰、金洞珉은 全洞珉、金今錫은 全今錫、申取吉은 申丙吉、李南燮은 車南燮、朱孟出은 宋孟出의誤植

取消

九月十日附發表中 遼陽城內第一商場南門外 義信洋行 三圓은新聞代金과錯誤이기로取消함

連載短篇小說 戀風 (6)

張赫宙作　安夕影畫

내가 그 암자들에 나왓슬때는 그들이 그압뜰은 마당을 지나여관으로 나려가고 잇섯다.

나는 수연이의 뒷그림자만 빤히 바라보고 섯섯다. 「수연이」 하고 불을수도 업섯다. 그는 여페서 걷일고잇는 젊은 사내의 얼골을 처다보앗다. 허리를 굽히면서 우수워 못견듸겟다는듯이 재절거리고 잇섯다.

나는 나의 동행인을 다리고 그들의 뒤를 따르려고하엿스나, 내 발은 다른방향으로 옮마지고 말엇다.

「이것은 이조(李朝)때 재건했는데, 건축기술로 보아 가장 뒤떠러젓다고 합듸다」

하고 흥겨웁게 설명하는사내의 말을들으며, 절구경을대강마치고 개천 가까히 밧또랑길을 타고 나려왓다.

나는 사천왕이 들어잇는절 문을 나섯슬때 저 건너편산 기슭에 수연이들이 하롱하고 잇슴을 보앗다.

저무러가는 해빗츤 그들의 그림자를겨오 나타내고 잇섯다.

수연이와 그의 동모는번가라가며 산기슭의 사태난곳을 즐다름질 치며 올르려고 하고잇섯다. 그러나 그들은 히게보이는 자갈에 주르르 미끄러저서 종처럼그우에잇는솔나무가지를 부뜰지 못하엿다 너대ㅅ거름다름질처 올으고는 주르루 미그러지곤하엿다. 젊은사내도 사래를 올러가려고 하엿스나 성공치 못하엿다.

나는 거름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고 잇섯다.

「공미친년놈들」

내 친고는 코소리를 하엿다.

나는 아모말도 하자안코잠시 한자리에 섯다가 천천히 걸음을 떼여 노핫다. 나즌곳에 왓슬때 그들의그림자는언덕에 가리워저 보이지안케되엿다.

나는 그사내의 섬리보담 수연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러고잇나 하고 생각하엿다. 그러나 그사나히를 따라온것이 수연이엇지, 그의 동모인 지, 혹은 그의 동모인 사

내의 회동들이 되려함인지 알수업섯다.

「아니 저연놈이, 대체 눈혼 하나고 별은 들인때, 어째잔말인고」

나는 내친구의 이말에 부독이 우서보이지 안흘수 업섯다.

「둘이다 그러켓지오」

나는 가벼웁게 대답햇스나 마음은 어째 편치 못하엿섯다.

식후 나는 뒷마당으로 통한 문을 열고 담념어 솔나무 숩을 바라보앗다. 바람이 또 일기 시작하여, 솔숩은 와수수하고 소리첫다, 나는 가을날과 가티 어째 寂寞하여지엇다.

나는 수연이들이 들어 잇다는 몸채 큰방쪽으로 귀를 가우리엇스나, 바람소리에 아모것도 들리지 아니하엿다.

람푸가 켜지고 밤이 기퍼질사록 그들의 행동을 상상하여 방바닥에 들어 누엇섯다.

나는 수연이를 저런 환경에서 구해 내고시픈 마음을 억제할수 업섯다.

「손님. 어떳소. 돼지를 잡엇다는데, 술한잔 잡숫겟소」

내가 그러고 잇노라니, 내친구가 들어왓다.

나는 무어라고 것잡을수업는 마음을 자위나 할까 생각하고 술을 청하엿다.

친구와 나는 한주전자 남짓하게 막걸리를 마시고 얼근하 취하엿섯다.

그러나 수연이의 그림자는 내머리에서 사러지지 안엇다.

나는 친구를 돌려 보내고는 더욱 수연이를 만나보구 시퍼햇다. 밤이 깁기전에 만나보아야 겟다고 생각하엿다

내가 잠이 막 들려는때이엇다. 나는 내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를 듯고 깜작놀라 고개를 들엇다

오디오

九月二十八日(金曜)

◇午後六時(東)管絃樂 一、[illegible]

그녀作曲 二、西班牙의夜曲 메제ー作曲 三、東洋風의舞曲 …루보밀스키ー作曲 四、喜歌劇「쵸코레ー트兵隊」…슈트라우스作曲 管絃 라듸오오ー케스트라 指揮 篠原正雄

◇同六時二五分 常識講話「꽃은」이야기(一) 金鍾仁

◇同七時三〇分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講演 朝鮮の秋祭り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敎授 秋葉 隆

◇同八時 俗謠와細笛 金玉仙 細笛 李炳祐

◇同八時三〇分 連續古談 咸興差使(一) 申鼎言

◇同九時 京城立唱 蔡元俊 韓仁學 崔順根 李正云

九月二十九日(土曜)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굿거리 奚琴 池龍九 大笒 方龍鉉 細笛 李日善 杖鼓 韓成俊

◇同二時 日米對抗陸上競技大會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劇 솔나무全一景 蘇寅變原作 延禧普明學校兒童 効果及伴奏 任用一 指揮 白鈴 (配役)솔나무……李彼雪 女神……金永愛 나무군……金光雲 少年……尹永哲 天使……少女三人

◇同六時二五分 常識講座「꽃은」이야기(二) 金鍾仁

◇同七時三〇分 講演 自力更生에對하야 李圭完

◇同八時 獨唱 一、어듸로… 二、물방아간사나히의꽃……슈ー베ー르트作曲 三、류ー르엔두자락을잡고……同 四、印度의노래……림스키ㆍ콜사콥作曲 五、노래와사랑으로살고「歌劇토스카中에서」……푸치니作曲 歐動謨 피아노伴奏 金元福

◇同八時三〇分 連續古談 咸興差使(二) 申鼎言

◇同九時 俗謠와大笒 一、六字백이 二、南道방아타령 三、둔가打鈴 四、긴밤打鈴 五、農夫歌 金錦玉 大笒 朴鍾基

九月三十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맨돌린合奏 토ー키ー音樂集 一、라모나 二、巴里의집웅밋 三、巴里祭 四、므레갈로의밤 五、會議는춤춘다 六、南쪽의哀愁 七、볼레로 京城맨돌린밴드 指揮 高橋功

◇同一時三〇分 日米對抗陸上競技實況 —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謠 一、齊唱 파랑새를차저서 二、獨唱 망아지의길노리 三、齊唱 거미줄 四、同 귀뜨람이 五、獨唱 적은우산 六、齊唱 늘은잠자리 七、同 파랑새차즘 八、獨唱 고향생각 九、齊唱 검둥어어흠 十、同 등근배 忠信學院兒童 指揮及伴奏 金龍燮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가을의感想 金仁泳

◇同七時三〇分 音律 靈山會像中 玄琴 韓靜淳 楊琴 金梓淳 奚琴 閔完植 大笒 金永根 細笛 高敬德

◇同八時 俗謠 一、關山戎馬 二、愁心歌 三、孔明歌 四、배다래가 鄭錦紅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蕭湘八景 二、沈淸歌 宋萬甲 鼓手 韓成俊

◇同九時 獨唱 一、노래가업스면……윤만作曲 二、주의품안……쁘레프作曲 三、오레十字架……베나ー드作曲 五、아름이업네……뎅스作曲 五、주의뜻을일우소서……스템빈스作曲 六、주의봄성……이베스드作曲 崔冕 피아노伴奏 [illegible]

水災에우는同胞에 幅湊하는同情의淚

大興寺兩團體 戶別訪問募捐 —海南支局에寄托—

【海南】 전남해남군 대흥사(大興寺)불교청년동맹、불교부인회(靑年同盟、佛敎婦人會)량단체에서는 수해동포에게 한끼라도 도아주라는 자비심으로지난 팔월수동맹위원김영욱、박량선、서동안(金榮鉉、朴良先、徐東安)삼씨는 사개면에각관계가정을 호별방문하야 일금식구원사전과 동부인회에서는 간부최금애、강보인(崔今愛、姜寶仁)량씨가 역시부인회회원을 방문하야 팔원오십삼전을 모집하야본사해남지국에 긔탁하여 왓는데 일반은 그들의대자대비의 선심에 칭송이놉다

慶山兩安息敎會 誠金모아寄托

【慶山】 경북경산군경산면사정동 재림안식교회(慶北慶山郡慶山面士亭洞第七日安息日敎會)경영인경명학원생일동(慶明學院生一同)은 해원의선생님을동하야 삼남수재의 참보를듯고적성금칠원이십삼전을본보경산지국에긔탁하얏다

경북경산군산상제동재림안식일교회유지일동은 일금 삼원여를 모집하야 본보경산지국에 가지고와서 재지에긔탁하기를 의뢰하엿다

海平靑年主催의 水害救濟演劇 四日間大盛况

【善山】 선산군 해평지방(海平地方)에서는 유지청년최형호 심재완(崔亨浩、沈載完)등십여인이 지방인사의후원을어더 수해에우는 재민을위하야 구제연극을 조직하야사일간 가설극장에서 흥행하엿는데 초유의대성황을일우엇스며 총수입이 일백삼십여원에 달하는 호성적이엿다한다 그리고뒤받은 그들의장거를 칭송들이하며 압흐로도린근지방을 순회할예정이라한다

梅谷敎會誠金 朔寧支局에寄託

【朔寧】 삼남수재의연금모집마금도 절박함을따라 교회의불길가튼동정열은더욱맹렬한데삭녕구역매곡교회(朔寧區域梅谷敎會)에서도제일회로리강삼(李康三)씨로부터 성금을모아본사삭녕지국에긔탁하엿다

勉勵會員總出動 手巾行商한剩金 龍岩浦支局에寄托

【龍岩浦】 룡암포중교회면려회의어린 동무들은 동회지도위원박영수(朴永秀)씨의격려하에 월여동안이나 수건행상을 하여 흥분이 모온는 뭇치겨운 선원삼오전과 회원끼리 모은오십일전합십일원 삼십륙전을 본보 압록지국에 긔탁하면서 한긔가 습래하는이때에 못먹고 못입는 불상한 동무들에게 보내달라고 하엿다

◇寫眞…手巾行商한會員一同

卅個里區長總辭 事態자못險惡化 雲南公普位置變更問題로 今後進展이注目處

【咸興】 함주군운남공보위치문제로인하여 구운전면추(雲田面)에서 그위치변경은당국에루차진정하엿다는것은긔보한바어니와 문제는 조금도동식되지안코 더욱첨예화하여 지난이십오일운전면추구장박진식(朴瑨植)외삼십구장은 일시에 사표를제출하고 니어진흥회장양진식(楊鎭植)외구명의진흥회회장도 일시에 사표를제출하여 사태는험악화하여 일반은 추죽하고잇다고한다

秋季種痘施行

【仁川】 소관인천서에서는 오는 시월이일부터 추긔종두를 시행하리라는데 금번에는 륙히전번종두의불명한자와 년령일세륙세 십이세로나누어 좌긔시일에 일제시행하리라한다

十月二日 檢査八日武德館 本町、仲町、支那町、山手町、松坂町 花房町 新町 萬石町 港町 海岸町 山根町 內里

三日 檢査九日 寺町小學校 濱町 花町 宮町 寺町 敷島町

四日 檢査十二日 第二公普校 柳町 桃山町 牛角里 金谷里 松林里

五日 檢査十六日 柳峴小學校 外里 龍里 龍岡町 松峴里 栗木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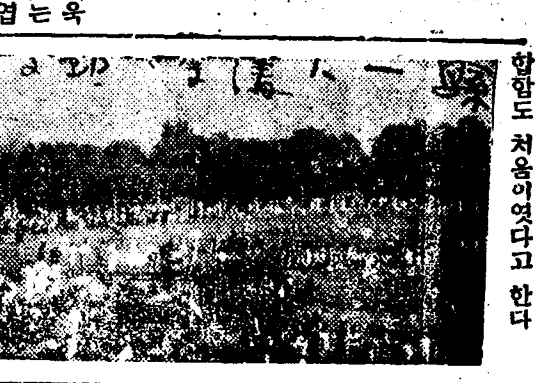
六日 檢査十五日 花斗里天道敎堂 花斗里 新花水里 萬石町

兩醫의赤誠

【春川】 과반의삼남대수해 리재민에대한 개생책은 실로망연한바 가슴의거둘것은전과갓지못할것이며더욱 독절이다다려서일과가치위오는데리재동포의참상은새로히가엽게생각되다이때에강원도춘천읍의약계(醫藥界)에서는본래제생(濟生)이 근본정신이니만치 특히유지조긔택(趙基澤)씨와윤치택(尹致澤)량씨의 로력으로 어려운생활가운대에서칠원각수를 거출하야 동포에의열성을 보엿다한다

安東縣三敎會 聯合大運動會 宣敎五十週年記念으로 廿四日鎭江山公園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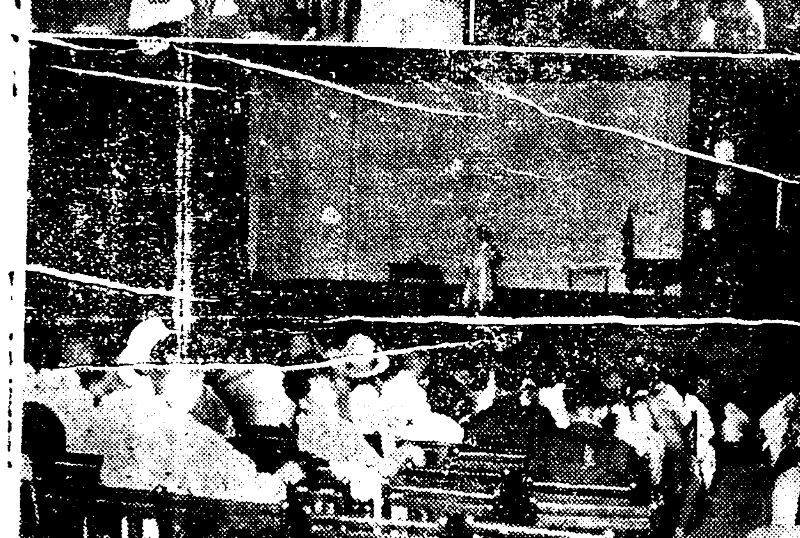
【安東縣】 지난이십사일오전아홉시부터 안동현 진강산공원운동장에서 야소교가 조선에드러와서 선교한지 오십주년긔념으로 만주에 잇서서는오직안동현에서 제일교회(第一敎會)중앙교회(中央敎會)륙도구 교회(六道溝敎會)이상삼교회가련합하야 추긔운동대회를 개최하얏는데 이날은 마침일긔가명랑하고결하야 중추팔월 추석임으로진강산공원에는 우리백의 동포의인산인해를 일우어 일일의행락을만족하게하고 오후 네시에 무사진행하얏는데오직안동현에잇는 야소교삼교회가 이러케련합주최함이 처음이오 이와가티조선동포가진강산공원에다수집합함도 처음이엿다고 한다



寫眞 同運動大會光景

瑞山支局主催 科學漫談盛況

【瑞山】 충남서산본사지국주최과학만담대회는 연사의 사정으로 예정보다 하루를연긔하야 지난이십오、륙량일간 개최하얏는데 제일일인 지난이십오일오후팔시에 본사서산지국장 신항균(申恒均)씨의 의미 심장한개회사가 끗나자 곳연사김봉수(金鳳洙)선생의 전쟁과학 만담(戰爭科學漫談)으로 청중을 꼿까지도취식혓스며 중간에 당지상춘의원장 홍덕유(常春醫院長洪德裕)씨의 통속위생만담(通俗衛生漫談)이 자미잇섯다는바 제일일는 대성황으로 마친후시내중산료정(中山料亭)에서유지이십여명이 집합하야 연사의위로연을설하고 사례의 뜻을표하며 간담을교환한후 오후십이시반에 산회하얏다고한다



◇寫眞……(上右) 大邱支局主催의 스마일링大會會衆 (上左) 同大會遊戱의一場面 (下) 同大邱支局主催의史話漫談大會會衆

大邱支局主催 兩。大。모。임 모다空前盛况을일워

＝스마일링大會＝

【大邱】 본보대구지국주최의권대구각유치원(各幼稚園)스마일링대회는예정과가티이십사일오후일시반부터 대구여전 공회당에서 개최하엿는데 정각전부터운집한 군중들은 장내에입추의여지가업시 만원을일우엇섯고천진란만한 어린아동들의 부리는특재룡에 모다들도 취하엿섯다 이날에는 본사활영의 경성각유치원원유회(京城各幼稚園園遊會)의실황활동사진과 취미진진한 과학영화를상영하야 일반은물론원아들에게도만흔유익을주고 동사시반에 무사히폐회하엿다

＝史話野談會＝【大邱】 긔보＝지난이십사일오후일시부터 대구공회당에서 개최한본보대구지국주최의 추석노리 야담(野談)과 영화(映畵)의밤은예긔이상의대성황을일우엇는데당야의강사신상우(申翔雨)씨의사화(史話)「최후(最後)의하직(下直)」등은듯는사람으로하야금깁흔감명을주엇스며동십시반에무사폐회하얏다

煙突의崩壞로 六歲小兒壓死

【安岳】 지난이십륙일오전십시경에 안악군안악면훈련리(訓鍊里)리준여(李俊汝)씨 집에서는 굴뚝이문어져서 주인의삼녀정희(貞姬)(六)가 압사되여 일대소동을 이르켯다는데 그날은훈련리에템시청결이므로이부자리를 일광소독코저 굴뚝에다 줄을매고 이부자리를 널단중 가굴뚝미러서 놀다가 그만 참혹하게도죽엇다고한다

渡航者安危몰라 家族들은呼之哭之 咸安一帶에物情자못騷動 關西大風災의反響

【咸安】 함안지방에서는군내각지로부터 대판、경도、신호(大阪、京都、神戶)등 각노동사장에가잇는사람이 무려 수천명에달하는바 금번폭풍우의 참변을입어서 수만명의사상자를 내엿다는 보도를듯고 그들가족들은크게불안을늣겨서 혹은 자긔의사랑하는 아들과손자와족하의 일홈을불러가면서 그쪽을 향하야통곡하며 혹은 조급한심경으로그곳까지가려하는자도만흘뿐아니라 매일우편소에는 수백명이모혀서 재지에잇는 가족들의안위여하를알려고 전보를 의뢰함으로 이전보가 산과가티싸혀서사무원은 안비마개중이라 는데재지에잇는분들은하로밥비본처지에 통신하여주기를 간절히바란다고한다

人心이자못恟恟 進永地方에도

【進永】 경남지방은일본내지도항자가 제일만흔곳으로 대개한동리에 수십인식이나 되는데 이번관서일대의 대폭풍수해의 보도가한번전하자 그들의부모형제와 친척되는 사람들은그의안위를 알고저신문지국을 차저 단기면서뭇는사람도 만흐며그동안 전신이불통되엿다가 이즘 개통케되자 재지로전보를보내는등 모다근심과 걱정을못치못하고 맛치직전당한것처럼 날뛰고잇슴으로 지방인심이 물안에차여잇다고한다

三登幼稚園 期成會組織

【三登】 평남삼등서는지금까지 유치원이업서 보통학교 입학전 아동 교육이큰문제이든바 지방유지들이 분긔하야 유치원긔성회를 조직하고 지난이십오일 역원을 작정한바다음과갓다

父子言爭끄테 八十老人猝死 原因은身後地賣買事件

【筏橋】 지난음력팔월초칠일 오전열두시경에전남순천군외서면장산리(順天郡外西面長山里)김재수(金在壽)(八十)는 그의장자김창현 (金昌鉉)(五十)과 산판매매문제로 언쟁하다가 현장에서즉사하엿다는바 그는 아들형제가잇으나 한애는 성질이불량하야 뜻에아맛고 한아는 모히 주독자이여서 뜻에 안마지나 생활이 구차하지안어구편에서진행당(明堂)에못쳐마음이 간절하야 수백전에을연한산동(開山洞)부근에자긔뭇칠곳을 사서두어달비장자이되는창현은어떠한생각이든지그땅을팔기로작정하엿다 그땅을팔면 말을들은 김모인은 장자되는 김창현을꾸지저 일대삼풍경을 연출하엿다 가족와 한께도엿지고 문인의지려어라 긔지하진하여 조합장장함을본 가족들은 다뭇라가고문제인물도 뒤따라나오지 쏠파이 삼분동안에 그는 병영을귀의되어되고말엇는데 그곳에에 대하야 세간에서는 여러가지풍설이 떠돌고잇다한다

結婚턱안낸다고 八名이作黨暴行 暴行罪로警察署身勢

【樂化】 지난십칠일오후일시부터 익일인당일 오전한시까지 경룡면회군내성면적성리 류규식(乃城面赤城里柳圭植)(곱)을수모로 무지무식한고용인(머슴사리)여덟명이 공모하고동리 강순암(姜順岩)(甲)을 곤봉으로무수란타하여 인사불성에까지이르게 한것이 당지경찰에탐지되여 경관수명이 현장에출파하여 그들일단의 여덟명을전부검거인치하여다가 엄중취조 한후 모다폭행구타죄로 이십구일구류즉결에 처하엿다는데 그원인은 피해자인전긔강순암(姜順岩)이가 얼마전엘아홉살에나는 청춘의 아름다운안해를 어덧는데 이날저녁에 가해자인전긔류규식(柳圭植)의 칠명이 나타나서 술을한턱요구함에 지금가진금액이업스닛까 후긔에 내겟다고하매 그러면 너의계집을내여노으라는등 실로말할수업는 언어도단의 추악한 행동을연출한것이라고한다

會長 張基甫 常業球 張基明 朴日九 林守權 會計 記事 張漢 許泰員 文鳳基 朱升鎭 趙允俠 朴在福 朱道興 鄭敎坤 張米昇

腦膜炎 平壤에大猖獗 現在患者廿八名 道衛生課豫防策講究

【平壤】 금년봄부터 류행되고잇는 평남의 류행성뇌척수막염(流行性腦脊髓膜炎)지금은 에도 자최를감초지모르고 두세의환자가 계속발생하는바 처음에 룡강군(龍岡郡)과 그접근지에서 약간의수가발생되고 잇든것이 최근에이르러서는 평양에서도동환자가 속발되여 작년도와환자의명을멋 갑배나초과하야이십팔명을 범서내엿다 그래서 도위생과에서는 먼저 예방책으로 환자와의 접촉을엄금할것을선전하는일방 철저한 예방법을강구중이라한다

金命鳳氏美擧

【兼二浦】 에점다처오는 생활곤난은 극도에달하야 자긔가납입할 의무를가진호세 조차내일도리가 업서크게근심중에잇는황해도황주군송림면석탄리(松林面石灘里)오십여빈민의 불상한 정상을보고동리구장김명봉(金命鳳)씨는 호세등급의 최하 이십등(金三十二錢)오십일명에대한 호세전부를 자담하엿다는바 전긔김씨는이외에도 빈민구제에 만흔노력을한다는데 현재구장 으로서도십여년간이나 무보수로 꾸준히근속한터이므로동리에서는물론사회에서까지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元山署員活動開始 勞聯會館을搜査 出版勞組에는解體勸告

【元山】 원산경찰서고등계원 이지난이십오일 돌연원산 로동련합회 회관을수색하는 동시에 원산출판로동조합 간부이든 김룡준(金龍俊)씨를 호출하야 출판로조의 해체계출을 권고한바잇섯다는데 동씨는 고주로서조직된 인쇄업동맹이 엄존한이상 그와리해관계가다른 로동자조합이 필요함에불구하고 이를해체하라함은 불가함을 말하고만일긔긔 출판로조가 불온한단체라면 해체계출을 권고하느니보다 해산을명령함이 올흘것이며더욱이 해체에관한것을 지금자긔단독으로서 결정할수업다고언명한바잇섯다는바 이일이잇슨익일인 이십륙일에도 고등계원삼명이 또다시 전긔노련회관을수사하고갓다고한다

農商楔大會盛況

【朔寧】 긔보＝지난이십삼일부터 이십오일까지 삭녕읍에서 농상계(農商楔)대회를 본사삭녕지국후원으로 개최하엿든바 신개지방선수의 참가로 대성황을 이루엇다는데 우승은정동군이라고한다

一等 定洞軍 二等 長財軍 三等 桂湖軍 四等 鎭邊軍

一、漣川郡朔寧面定洞軍 二、同 同 桂湖軍 三、同 鎭邊軍 四、同 亭子軍 五、同 魚積軍 六、同 離岳軍 七、同 楮田軍 八、同 西南面長在軍 九、同 同 小芳軍 十、同 中面中沙軍

法院復活祝賀式

서진법원지청사무부활축하회는 지난 이십이일오후이시부터 서진구내에 가설한 회장에서소천(小泉)경성복심법원장을비롯하야 송하(松下)검진 지방법원장교본(橋本)경성복심법원검사장과하서긔금 구보전(久保田)지청 검사식원(植原)판사이하각청판관계각군관민유지이백여명의렬석하에 성대히 거행되엿다고한다

張志雄氏特志

【全義】 충남연기군전의면 (燕岐郡全義面)용내리 장지웅(張志雄)씨는 전의경찰관 주재소가협착하야 신축코자하나 경비곤난으로 주저함을 보고현금일천사백원을 긔부하야 신축하게하엿슴으로 주재소에서는 전사무소를 일백이십원에 매각하야 합계일천오백이십원으로 신축중인바 불원간 락성되리라 하며일반은 소변두지가 장씨에대하야칭송이자자하다고한다

新溪郡下에 三人組棍棒强盜 通行人의金品을强奪

【新溪】 지난이십칠일오전한시경 신계군신계면(新溪郡新溪面)대현동(大峴洞)의 강희언(姜熙彦)(三六)은 그전날밤 동군 고면정봉리(古面丁峯里)홍순덕(洪淳德)방에서 주변을하다 도라오는길에 동면삼성봉리부근산상에서 돌연 삼인조의 강도가 나타나 곤봉으로 강(姜)을 따리며혼도케한후소지금품 삼십팔원 엇치를 강탈도주 하엿는데 피해자는중상을입엇스며 범인은 아직체포치못하엿다한다

島嶼中心의 通運丸進水式 —仁川第一棧橋에서—

【仁川】 인천근해각 도서(島嶼)간에 늘 교통이 불편하야 어업등의 운반에대단 곤난하든바 이를유감으로생각하든 부천군에서는 군내각유지를 망라하야 통운조합(通運組合)을 조직한후 그간제일제이의통운환(通運丸)이척을제작중에잇든바 준공되야 지난 이십오일오전십시부터 부내제일잔교에서 동조합장 김완수(金完洙)씨사회로 진수식을 거행하엿는데 순서에의하야 경긔도 송본(松本)지사와 각유지의 축사가잇슨후 처녀항해로 월미도를일순한후 동섭이 시경에 월미도조탕의 피로연으로 서성황리에 폐회하엿다한다

金剛山探勝團 二十七日에出發

【金城】 금번김성역과본보김성지국주최로 단풍의 금강산을 탐승키위하여 단원을 모집하든중 지난이십칠일에 이십삼명의단원을 김성역장과 본보김성지국장최재두(崔載斗)씨인솔하에 시엄간예정으로 내외해금강을 전부답승하리라한다

伐採妨害한다고 手斧들고몸부림 仲裁者를斫傷生命危篤

【牙山】 충남아산군도고면시전리(道高面市田里)에서는독긔로사람을찍어 듯기에도 솔음이끼칠만한참사가 발생하엿다한다사실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아산군 도고면긔곡리(道高面基谷里) 신해봉(申海鳳)과 동면신언리 안치만(安致萬)의 삼십여명이동면시전리뒤산에서 벌채(伐採)를하던중 지난 십칠일에동리김성진(金聖振)이가 마차를끌고나무를 운반하다가 벌채하는인부를보고 고단한테 담배나피고하자고하엿든니전긔안치만은 벌채하는인부들을 쉬이게하엿다고 김성진(金聖振)을 무수구타함으로 신해봉은 싸홈을 말리엿든바 안치만이는 독긔를가지고 싸홈말리든신해봉을 먼저죽여버리다고하여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稻熱病大猖獗 全義地方에

【全義】 충남전의지방에는금년에 비가자조와서 농작물성적이 량호하던바 발수긔에이르러풍우가심하야 결실이 불량하고도열병(稻熱病)으로벼가만히죽으므로 농가에서는 우려중이라한다

慶和洞防波堤 竣工式擧行

【鎭海】 금년봄부터총경비일만이천원의 예산으로 진해읍경화동(慶和洞)해안에 방파제(防波堤)를축조한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그동안 공사가완성되어 지난 이십사일에 진해읍경화동진해어업조합사무소에서관민유지 오십여명이 참집한가운데서 준공식을 성대하게행한후 여흥으로 진해어업조합원의어선(漁船)경조회가잇섯고 동일오후칠시부터는 소인극(素人劇)까지잇게되여 매우 성황을일우엇스며 경조회입등한어선은 다음과갓다한다

全谷山 蹴球大會盛況

【谷山】 지난이십삼일 오전십시전곡산 제일회축구대회가 천도교청년회의주최와곡산군체육협회 동아 중앙 조선삼지국후원으로회장김영한(金英漢)씨사회하에 공립보통학교 그라운드에서 열녓는데 가입단체는 륙개단체로 오륙십명의 건아들이경기를 발휘하엿는데 우승긔는결국곡산연초경작조합원으로도리갓다한다

鄕軍大會도盛況

【朔寧】 긔보＝지난이십삼일부터이십오일까지 주야로 개최하엿는데 일반까지 삭녕에서 처음보는대성황을 일우엇다

晉州脚戲大會 李山伯遂連勝

【晉州】 진주동식정조합주최와 진주신문지국후원으로개최된씨름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사、오량일간남강가리에서 개최되엿든바 진주읍(晉州邑)의 리산백(李山伯)군이 삼련승하엿다

一等 安峡尹重天 二等 安峡王道福 三等 伊川文岩張 四等 金川霖崙 許福男

◇小人脚戲入賞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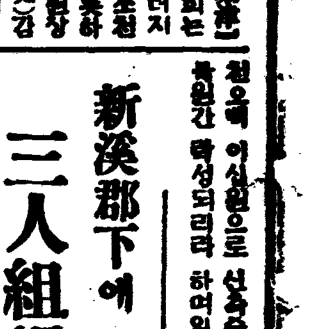
一等 朔寧 崔穆立 二等東 滿天 三等 朔寧 高起春

第一回全鮮 個人庭球大會 本社支局主催

지난이십사일본보지국주최의 제일회개인정구대회를 개최하엿는데 ... 으로탈락하엿는데 입상자는 아래와갓다한다

一等 李在書 金在當 二等 李印童 鄭用 三等 崔川 金永善

ビクター 洋樂 アサヒ樂器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二六五九番 コレー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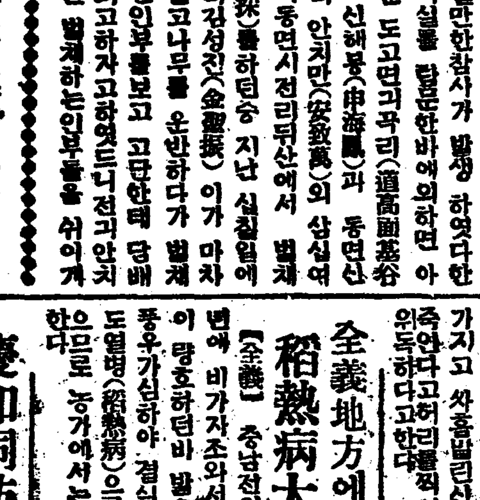


世界的쏘프라노 鄭勳謨女史 獨唱盤 高級盤 아베마리아 구노曲 安樂한家庭 비숍曲 오케―레코―드 市內特約店 鐘路 琴音樂器店 鐘路 東明商店 朝鮮蓄音商會

九月廿八日부터三日間 (三十日曜日에는晝夜三回興行합니다) 時間은每日二回 夜七時半 大衆料金 階上五十錢 階下十錢均一
現代名畫 放浪의處女 全十二卷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さすらひの乙女) 川崎弘子、岡田嘉子、奈良眞養 主演
喜活 싸홈舞踊會 全八卷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막스우엘、부란지엣하우엔氏 主演
次週 靑春의꿈을 꾸는꿈이지금어듸입가
鐘路五丁目 電光二七七五 第一劇場

九月二十九日밤부터特別大公開 九月卅日、十月一日은晝夜二回公開 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유니버살社超特作映畫 純朴한花園의戀愛悲劇 들의피는꽃 全五卷
◇米國칼로산社超特作映畫 冒險活劇 猛優닭막치 全七卷 監督─헨리맥라만氏 主演─리차드탈맛치氏
◇映音全發聲社全發聲日本語版 爆笑喜活劇 나잡잘수업서 全九卷 監督─小澤得二郎氏 主演─柳永二郎氏
麻浦桃花洞 電話龍山一三三三 桃花劇場

局部塗布用 強精クリーム セーブレピン
適應症 陰萎、勃起不良、發育不良、分泌減少症、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의 セーブレピン은 芳香性크림狀의局所塗布用強精劑로習慣性、副作用이無하고 少量式塗布로生殖機能이強大한
二○五入 二圓五十錢 東京青山二丁目天醫堂 (振替東京一九二四番) 藥店、데파─트에잇소 品切時는發賣所에注文하시압 文獻進呈(無代)



精品 瑞西 景品(水晶印)付 至急投賣 クローム腕巻時計 クローム懷中時計 東京市牛込區早稻田町四九 振替東京六二七八一番 石田商會時計部

農省米穀統制參考案

表裏兩面內容解說

目下 開會中에 잇는 米穀對策調査會에 지난번 農林省으로부터 參考案으로 統制案中의 一次안바와 가티 압에의 八案을 提出하엿다 ▲米穀調節法改正案▲移入外地米穀統制案▲正租共同貯藏案▲日本米穀自給的統制案▲米穀自治的統制案▲米穀管理案(政友會案)▲米穀局新設及自治統制案(民政黨案)▲米穀配給統制案▲米穀局關聯案에 나타난 諸案

以上八案에 對한 日本內地의 見解는 다음과갓다

×

農林當局의 말에 依하면 以上諸案은 「世上에 流布되는 여러가지 案을 蒐集한것」으로 그대에 重大한 意味가 업다고 한다 政友會案과 民政黨案에 限하야는 「世上에 流布된 案」이라 하는것이 틀림업스나 一로부터 五까지의 案은 形式은 어떠하든지 어느 程度까지 農林當局의 方針을 暗示하고잇다 現行米穀統制法自身과 한가지로 農林省에 今年未曾有의 大豐作으로 窮境에 빠저 失敗하엿스나 外地米와 日本內地流入을 어떠케 處置하지안흐면 안이 될것다는 農林省의 傳統的精神이 그 提出한 參考案中에 分明히 나타나잇다

×

問題의 外地米는 어떠케 取扱되어잇는가 參考案에는 移入外地米穀統制案과 米穀自治的統制案의 二案이 잇는바 前者는 簡單히 要約하야 말하면 다음과갓다

(一) 政府는 每年의 米穀年度의 需給推算을 하여보아 그年度末의 民間持越高가 一定數量卽 農林省當局에서는 大體로 五百萬石으로 豫測하고잇는 數量에 達하지못하면 그 法案은 그年度에는 實施하지안는다

(二) 反對로 民間持越이 만케될때에 비로소 그 法案의 發動을 보게된다

(三) 이곳에서 마침내 法案을 運用하게되면 政府는 于先 日本內地에 移入하는것을 政府의 獨占으로하야버린다 卽 滿人은 一切日本內地에 쌀을 가지고 올수업시된다 一面 政府는 外地에서 公定價格에 依한 買上을 行하야 滿剩米를 買收하야 그中에서 必要한 分量을 日本內地에 移入하고 外地에서 處分한다는것이다

×

이것은 「差別待遇」이라는 말을 巧妙히 表面上으로는 用치 안흔것이다 外地米의 滿剩分을 外地에서 處分한다고 하지마는 買上米의 賣却價格 日本內地移入數量은 알수가업다 適當히 處分한다는것이 되는 外地米의 生產量을 어떠한 程度로 決定할것인가를 생각하면 內外對立은 아직도 相當히 存在하고잇다

×

다음에는 外地米의 自治的統制이라 이것은 內外地를 一律로 하라고함으로 外地差別待遇의 外貌는 더욱 稀薄하게된다 그案의 內容은 다음과갓다

(一) 政府는 內外地를 通하야 小單位의 米穀統制組合을 組織케하야 一定한 數量의 쌀을 原則으로 그組合의 責任的任置로 外地에 안나가도록 한다는것이다

(二) 그一定數量이라는것은 그組合의 所在地方의 剩米를 그組合을 通하야 나타난 情에 따라서 按分한다 組合은 그一定數量에 限한것이며 政府는 어떠한 程度의 買上 그것이 斷行할것이나 합부로 實施치못한다

(三) 그方法으로서 組合은 强制的으로 貯藏한다 按分的으로보아 그組合에서 貯藏할수업는米와 其他過剩米는 政府가 買上하게된다

×

調査會의 方向 卽米穀統制法의 缺陷에 對한 是正의 方面에는 統制法의 直接的改正과 日本內地米穀自治的統制案 또는 今年成功하얏다고하야 農民省正租貯藏案의 恒久化等세가지가 잇으나 그中에 自治的統制案이라는것은

(一) 政府는 產業組合을 中心으로 米穀販賣組合을 全國的으로 組織하고 이것을 道府縣과 全國을 中央集權化하고 販賣는 產業組合中心의 販賣를 行할수 있다 그것은 組合의 買上價格以上이되는 수업고 農民價格以下라도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은 商業의 自由에 對한 큰 制限이다

(二) 組合에는 强制가 잇다 그리나 一面으로 政府는 組合에 對하야 販賣權을 주엇다 卽政府는 商業者를 組合의 獨占으로하야 商人들로하여금 손을못대이게하엿다

×

農林省의 參考案을 通하야보면 農林省의 意圖를 알수가 잇다 그러나이것이 農林省의 最後意圖는 勿論아니다 卽參考案을中心으로 調査會가 어떠케動向케될것인가 함이 問題가된다 그러고 委員들의 人物로 보아서도 順調롭게 進行될것갓지안타 將次무엇으로서 結果를 지을는지 今後情勢가 注目을 끈다

朝鮮內今年稻作狀況은

平年作以上으로豫想

旱水害、急冷으로部分的不作이나

全體的으로는良好

◆卄八日 宇垣總督談

宇垣總督은 二十八日午前 定例會見談中 記者團과 마음과가튼 말이잇다

吉、高陽、始興、金浦、富川 諸郡內를 視察하엿는데 最近 天候가 順調로 大豐作은 못되나 相當히 잘되엇다 其他朝鮮內各地의 모양을 드드래도 旱水害와 旱冷을 바든地方은 不作이나 其他의 地方은 매우 잘되야 平年作 或은 若干 그以上이 아닐가 想像된다 米價도 相當히 高價로 維持될 모양이다

米穀對策으로는

自治統制支持

連日農林局秘密協議繼續

總督府는差別反對

이미 米穀對策調査會가 열려 政府와 各委員間에 米穀統制問題를 가지고 質問應答이 開始되엇다 그림으로 調査會의 議論은 漸次本格的舞臺로 들어가는만큼 一般의 注目도 이곳으로 集中되는터이다 딸아서 朝鮮總督府側에서도 그調査會의 形勢가 어떠케 進展될가를 重視하면서 한便으로는 날마다 湯村農產課長을 비롯한 各技師가 秘密理에 協議를 繼續하고잇다 그러나 朝鮮米의 移出을 自由롭게 못하는 差別的待遇에는 어듸까지 反對하자는 大方針은 變치안코 딸아서 拓務省案인 米穀自治統制案을 支持하는 傾向이 顯著하다 다만 調査會의 空氣가 어듸로 向할는지 아즉 確然치못한만큼 正面的反對의 態度를 躊躇하는것이다 그림으로 오늘의 沈默은 調査會形勢如何로는 靜中動의 結果가 될것갓다는 觀測이 相當하다

◇滿洲視察을 하고 二十八日午前八時五十五分京城驛着으로 歸京한 京城銀行團視察氏

昨年中肥料

消費總數量

一億八千六百萬圓

【農產課調査】 昨年自給肥料消費高는 一百三十四萬圓이다 그中自給肥料消費高는 二千四百四十萬圓 金額一億六百三十四萬圓 綠肥三百七萬圓 金額一千五百八十七萬圓 其他의肥料를合한 總數量은 三千四百三十五萬圓 그金額一億五千八百十四萬圓으로 前年에比하면數量은 五分 金額은六分의各增加이다 다음에는 販賣肥料消費는 四十二萬圓 그金額二千八百十九萬圓으로 前年에比하면數

分의激增이다 面數量五分增加이나 金額은一割九分의激增이다 一般肥料價格의 昂騰으로 一割九分

一七十七萬圓 그金額一億八千六百

朝鮮米收穫豫想

發表日을延期

朝鮮米收穫第一回豫想은 今月二十四日現在로써 二十八日中發表할豫定이든바 數字計算上關係로 延期하야 二十九日에 發表케될모양이며 만약 또二十九日에도 그發表가못될境遇에는 休日關係로 十月二日에야發表를 보게될것이라고한다

昨年中會社總數

朝鮮에本店二千二百社

朝鮮에支店百六十三社

◇…公稱資本七億圓

【商工課調査】▲朝鮮에本店을둔會社=昭和八年末現在의朝鮮에本店을둔會社總數는 二千二百七十九社로 그公稱資本金또는出資額은 七億九百四十七萬六千四百九十圓、拂込資本金또는出資額(財產出資로 拂込終了의것)四億二千五百四萬一千百九十九圓、積立金四千五百七十三萬三千二百六十四圓 利益金二千七百七十八萬五千五百八十三圓、損失金三百三十八萬四千三百六十五圓으로 이것을前年에比하면 社數百二十一社 出資額二千九百九十一萬四千六圓、拂込資本金또는出資金一千五百十六萬一千五百八十五萬一千五百三十圓、積立金九百七十八萬五千百十圓、利益金二百三十六萬五千五百五圓의各增加이다 ▲日本內地또는外國에本店을두고 朝鮮에支店을둔會社=昭和八年末現在의 日本內地또는外國會社의朝鮮에둔支店數는百六十三社로 그公稱資本金또는出資金(本店의總額)二十三億八千六百十九萬九千二百七十圓 拂込資本金十九億六千五百十六萬一千百十六圓으로 이것을前年에比하면支店數는二社 拂込資本金三百二十四圓減少이나 公稱資本金은 出資金二千五百四千八百七十圓의增加이다

私的懇談會

◇日蘭會商의進行

【電通바타비야二十七日發】 日蘭會商의 私的懇談會는二十七日午前十時부터 開催하고 比率問題의討議를 續行하얏는데 日本側은日本으로부터의輸入品에對하야 日蘭商半分식을主張하고 蘭印側은蘭印에의輸入品에對하야 五十六種制限令에서와 거의同樣의比率을本品에制當코저하야 雙方의主張이不一致하고 日本側은日蘭印間의貿易品以外에 엄기를更히强硬히主張하얏스나 比率問題는 드듸여右와如한意見의相違로 이以上討議를續行하야도意見一致의可望이업서 問題는그만내버려두고 二十八日부터는商品問題에對하야 討議하기로한後 午後零時二十分에散會하얏다

滿洲에는

建築旺盛

河口朝銀支配人談

滿洲視察中이든 京城銀行團은 卄八日午前八時五十五分 歸京하얏는데 河口朝鮮銀行支配人의觀察談은 압에와갓다

奉天、哈爾賓、新京、大連、撫順、安東縣의順序로觀察하고왓는데各地가모다官廳、工場、一般家屋의建築熱이旺盛하야可觀할만하고 附屬地의更生氣分과相俟하야 非常한活氣를呈하고잇서 城內外共히人心이安定되어잇다 日本內地資本이作수流入하야 各種企業이勃興되는中인데 日本人의進出이顯著하다 哈爾賓과如한것은事變前三千五百人에不過하던日本人이一萬二千人으로 滿洲人은三十萬人이 十五萬人으로激增되엇스며 露國人은七萬人이七萬五千人으로激減하얏다 北鐵問題의 解決은 非常한 好感으로써 歡迎되고잇고 交通發達과農村景氣를將來에 期待할수잇는바 北朝鮮과 大連은 今後共存共榮的으로發展할것으로思한다云云

南滿大豆作況

最近多少恢復

【新京電話商通】 南滿大豆作況은 最近多少恢復되어 二百四十一萬二千八十噸으로豫相되기에至하얏다

商工界消息

▲火保地方會役員決定=大日本火災保險協會京城地方會長에 石川朝火社長이 就任하고委員은滿期改選의結果如左決定하얏다

東京火災、橫濱火災、神戶海上、福壽火災、朝日海上共同火災、日本火災、千代田火災、大阪海上、朝鮮火災

商況 (卄八日)

株式

利喰押後 躍進

前場反弛 昨後場急騰의 뒤를이어 今前場은 高價買警戒와利喰物로 値崩이되가反弛이엇스나 卽東新은 百四十圓四十錢의高價가잇섯스나 百三十四十錢의高價가잇섯스나 百三圓八十錢이 되고 後場躍騰 後場은保合裡寄付後陷地景氣에 떨어買氣倍加하야 一齊升高價이엇스니 卽本升은 百四十一圓五十錢、大升九十圓三十錢、日產百二十圓八十錢 朝升三十九圓八十錢에躍騰이고나서 少押大引이엇스며 拓升九圓四十錢이 잇섯다

東新十圓恢復

百四十圓戾

北鐵交涉成立好材料에도 不拘코東新等에 盛賣物이만허 頭重不勢이엇스나 當限平穩納會가動機가되어 上放된 市勢가 結局에 昨後場에는 大阪부터 더욱硬化하야 東新百四十圓三十錢으로 關門恢復의 好勢임을 말할 어 當地도 百四十圓二十錢에 買氣裡大引되고 今前場은東新도 百四十圓七十錢、大阪二十錢、當地四十圓七十錢의 高價가잇서 月央低價에서 十圓戾를 示現하는 强調이엇다 그러나 어듸까지던지 一時的反戾에 不過하고 眞正한好轉은 時期尙早로 보는 弱氣가 依然蟠居하는 때문에 高價는 利喰을 急히하고 積極的買進을 警戒하는 一方 戾賣物도 잇서서 佛價이오 反弛이엇는바 十圓戾를 示한 東新의 目前이 果然어떠할지? 買方의 續買賣이냐 또는實力잇는 軟派의 戾賣이냐 小口들의 迷徨이 갓섯다

押目買轉換?

明朗化한市勢

臨時議會開會後의 政局不安이 不無함으로 市勢는 아즉도好轉된것이아니오 다만一時的反戾에 不過하다하야 市勢를 輕侮하는 弱氣가 不無하나 如左한諸點에잇서 市勢를 押目買로볼수는 업을가?

▲北鐵問題解決=이것으로써 將來蘇聯勢日滿關係는 改善될 端緖가 생기엇을뿐아니라 英米等他國關係까지도 크게 樂觀할수 잇다

▲復興景氣期待=阪神風水害의 被害가 크지만 今後政府의 復興資金이 各府縣에 支出되고 政府以外의 復興資金의 撒布로 「인푸레」는 一層助長될것이다

▲增稅不安解消=오래동안 市勢의 病이던 例의增稅問題는 今般風水害로 疲弊한 農村이나 事變界에 對하야 復興을 압세울것이오 增稅는 不可能할것이 뿐아니라 日蘇關係好轉도 잇서서 軍事費分削減도 豫想되는만큼 明年度豫算은 增稅안코 編成할모양이다

▲政局不安無產=臨時議會가 開會되면 政局이 不安케되리라는 觀測이 업지안흐나 반드시政黨과 正面衝突하리라고만 斷定할수업고 지금부터 이것을 걱정할것이 아니오 觀測에 依하야는 別로 念慮가업을것도갓다。

從하야 이미 十二分大整理를 終了한 이市勢는 今後機會잇을때마다 上向「코-스」를 取할것으로보이는바 果如何?

實物前場取引

賣買高六三〇枚

▲金剛山電鐵 三一、〇〇▲藤井人絹 二、〇〇▲帝火 三五、五〇▲興光 八〇、〇〇▲秋田木材 六〇、〇〇▲同新 四〇、〇〇▲滿洲工礦 一〇〇、〇〇▲東洋拓殖新 二二、五〇▲京南鐵道 六〇、〇〇▲三菱重工業 二二、〇〇▲大同電力 四五、五〇▲同新 一四、四〇▲滿洲電信電話 七〇、〇〇▲日滿亞 二一、〇〇▲에다마이 二三、〇〇▲에다마이新 一三、〇〇▲太平洋 一二、三五▲日滿亞麻 二二、〇〇▲東滿빌딩 三五、〇〇▲東亞殖產 八〇、〇〇▲大同產業 四〇、〇〇▲日本電力 五四、五〇▲東京電燈 一九、〇〇▲同新 一九、〇〇▲三菱礦業 二三、〇〇

東京公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二、六〇	
二回四分利	九八、六〇	
佛貨四分利	一八四、五〇	

市場六感

株

恢復無望은 市勢를 十圓反戾시킨 힘은 무엇무엇하야도 北鐵交涉成立에잇다▲大阪風水害로 이것을感應할힘이 업섯스나 當限이平穩納會되는바람에 北鐵交涉成立이 새기운을준모양▲觀側에依하야는 相異할지도모르나 北鐵問題解決은 極東의將來性에까지 好影響을 줄것을생각한다면▲一時日蘇關戰까지 怯내던 反對의 好材料로봄이 無理가아닐듯▲實力잇는 賣方이 慢性的으로 大勢

米

約七十丁의 瓦落을 告하든 場面은 다시 를 依然悲觀하야 戾賣를 續行할지 모르나 下旬 貿易이 大出超를報한다면 모처럼 上伸力이생긴 市勢의 勝性에 拍車를 加키도 十常八九▲나종일은 何如間 오래간만에 明朗化해진 이市勢에期待를가지자

買氣熾烈하야 四十餘丁을 昂騰▲其間買方은 政府의 拂下를 念慮하야 警戒不怠하엿든 것인데 政府는 何等의 發展을 하지아니함으로 買氣再燃▲中限이야말로 拂下를 하지안는 때에는 渡米의 調達이 또한困

期米

買氣再燃

奔騰

前場反高 昨後場 阪地二十八圓十四錢止와 共히二十五圓十七錢에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二十八圓〇六錢인 八丁低落을 보이고 二十五圓十錢인 七丁低로 場을 개시한後阪地八圓 再割인 七圓九十六錢을 보고 當地도 〇二錢에 騰하얏스나 阪地更高 八圓十二錢止와共히 漸高하야 二十八錢에 止場하다

後場新高價 後場은 二十五圓四十一錢에 十三丁高로 始場後 大阪中限 三十圓關門突破의 好勢에 作하야 二節先限五十一錢 新高價에을 느고 三節四十八錢에 强健이고 四節四十六錢 五節四十七錢으로 別欄가티 止場하다

拂下遲延으로

買氣又復熾烈

大體今年米作의 現況으로보아서는 日本內地及 朝鮮을 不問하고 更히 豐裕할 餘地가 업스나 그러나 買方으로서의 追擊攻勢을하지못하고 警戒自肅하엿슴은 政府로서 何時에 所有米를 拂下할지몰나서 高價에는 利喰을 急遽히하야 約七十丁의 瓦落을 告한바 되엿다 硬派는 다시 戰線을 延長하야 買進不怠하는 光景이다 當限은 今前場으로서 最後一幕을 告하게 되엿거니와 中限은 拂下를 하지안는 때는 또한 渡米의 調達이 雖할것을 豫期하고 벌서부터 疾走하는 모양이다 何如間米價의 大勢는 拂下가 잇든 업든 昂騰途程에 入하엿슴으로 拂下를 하는 때는 安心코 買進할수잇다고 硬派는 絶對主張을하고잇다

受渡高와價格

▲渡方 一、六〇〇石 ㊇二〇〇石 ㊅二〇〇 ▲受方 ㊆一、〇〇〇石 지一、四〇〇石 ▲受渡石數 二千四百石 ▲受渡價格 二十七圓

朝取期米取組高

▲中限(賣) 一三、一〇〇 지三、一〇〇 ㉠三〇〇 ㊉二八〇 ▲先限(賣) 一四、三〇〇 ㉠一、九〇〇 ㊇一、三〇〇 (買) ㉧二、五〇〇

當限一代記

步幅四百四十丁

今前場으로서 最後一幕을 告한 當地當限은 去七月二日에 二十三圓五十錢인 二十九丁下錆로 發會한後 一時三十錢으로 小弛한後民間在米의 品薄소리가 擡頭하기 始作하야 月末에 四圓五十七錢까지 昂騰하엿다가 四十七錢으로서 中限에 入하엿다 此際부터

堂島前場頑健

【大阪電話】天候는 恢復되엇스나 各地의 品質가 深刻化하야 押目買氣가 强하고 底意頑健이엇다 ▲賣方地場(乘替)朝鮮側、京都

各地正米

京城小高

定期高로 買氣濃在하야 平穩이오 底意는 强硬하야 十錢小高이엇다 ㊉三等二六、四〇 四等二六、二五 一等白米一九〇〇

仁川引締

定期米의 擁定으로 期米小强에 氣配를 引締이엇다 ㊉三等二六、四〇 四等二六、二五 一等白米 二一、二〇

南滿伸惱

定期는 小高이나 買方은 모다 形勢傍觀모양으로 氣乘薄이오 賣行 不振하야 市勢는 同樣伸惱商狀이엇다 ㊉三等 二六、六〇 四等二六、四〇 一等白米 一〇、七〇

群山强含

定期의 入注下進으로 日本內地方面의 入注가 旺盛하야 賣人도 强硬이 되엇다 市勢는 强保合이엇다 ㊉三等二六、四〇 四等二六、〇〇 一等白米 二一、〇〇

木浦反撥

淸算의 恢復과 賣方硬化로 買氣旺盛인데 比하야는 取引이 不進捗하얏고 市勢는 二十錢反撥이엇다 ㊉三等二六、七〇 四等二六、五〇 一等白米 一〇、五〇

今日財界 (廿八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 二六三五
大阪期米先限 二三、五六
㊉三等米一石 二六、四〇
京城精白米一石 二九、五〇
一斤 正租(仁川)(改良在來) 不變

市中金融價 一、九〇 一、九〇

株 (單位錢)

朝鮮 一〇、〇〇
東新 一三〇、四〇
日產 二九、〇〇
大阪綿絲 一七〇
大阪人絹
大阪綿花
ゴム現物

▲朝鮮秋繭市勢 (卄八日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種別	最高錢	最低錢	買賣掛目	數量貫
九、二〇	慶北尙州	白繭	四〇	三八	一四、九〇	三四一
二二	黃海金川	同	四三	四一	一四、七〇	二九八
二三	同	同	四六	四一	一五、七〇	一八
二四	全北井邑	同	四六	三四	一五、五〇	一三〇
二五	慶南咸山	同	四七	三一	一六、〇〇	二七二
二六	慶南咸山	同	三九	三一	一三、五〇	二六三
同	成川咸興	同	四一	三三	一三、二〇	一一三
同	慶北安東	同	四二	二七	一四、五〇	二四五
二七	黃海沙里院	同	四三	二六	一六、〇〇	二四五
同	咸南咸興	同	四一	二三	一四、〇〇	二四五
同		同	四六	三〇	一五、〇〇	一九七

(以上一斤當價格)

金融

滄外經濟 (廿八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27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27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東京金利 (27日)

[illegible]

大阪金利 (27日)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貫入價

[illegible]

米穀

京城正米 (卄八日)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格 (27日)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京城綿絲布市勢 (卄八日)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蠶絲市勢 (27日)

[illegible]

치카고期黍

[illegible]

錦油沖價

[illegible]

綿花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時勢

[illegible]

各地當限受附內容

	石數	價格
群山	五、四〇〇	二五、六六
木浦	五、〇〇〇	二六、〇〇
大邱	一、六〇〇	二五、〇〇
釜山	五、〇〇〇	二六、〇〇
東京	三、二〇〇	二八、一〇
神戶	一、五〇〇	二六、六〇
下關	一、三八〇	二八、二〇
金澤	一、五〇〇	二七、二〇
京都	一、〇〇〇	二七、八〇

株式 (廿八日)

朝取短期

	前場	高價	低價	後場
朝取		三〇	三〇	
同新				
朝新		八〇	八〇	
鐘新		八〇	八〇	
大新		三〇	三〇	
東新				
日產				
朝取		四〇	四〇	
日魯				
日軌				
日産				
滿新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東新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		二六、二五	二六、二六
二		二六、二一	
三		二五、三六	
四		二五、三七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27日)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三九七、八九九石 三〇五四四包

商品 (廿八日)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仁川期米 康益夏商店 仁川 海岸町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 黃金町